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토마스 브루시히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나타난 독일 통일의
‘빛’과 ‘어둠’

- 등장 인물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백 민 아

토마스 브루시히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나타난
독일 통일의 ‘빛’과 ‘어둠’
- 등장 인물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 오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백 민 아

백민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요 약

토마스 브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는 동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전환기에 겪는 혼란과 방황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 동독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행복을 느끼지만, 상상했던 것과 다른 서독 사회의 모습에 실망한다. 브루시히는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환기 독일 사회에서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어떤 내·외적 갈등을 겪었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실제 대한민국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가올 부정적인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 통일 당시의 사회모습 및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 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가장 현실감 있으면서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기 문학 Wendeliteratur’은 연구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전환기 문학을 대표하는 독일 작가 토마스 브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등장하는 작품 속 인물과 사건들을 ‘빛’과 ‘어둠’의 측면에서 고찰해본다. ‘빛’과 ‘어둠’은 보편적으로 ‘삶과 죽음’, ‘선과 악’, ‘이상과 현실’과 같은 대립적 의미의 상징체계를 갖는다. 또한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시대적 상황 및 시대의 전개 양상에 맞추어 상징하는 의미가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전환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미래와 어두운 현실’, 동독인들이 느끼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등으로 나누어 ‘빛’과 ‘어둠’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본다.

더 나아가 전환기 독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동독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본다. ‘정체성’이란 한 사람이 살아온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이자 자기 내면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독이라는 집단정체성이 붕괴된 이후 동독 사람들이 겪는 혼란 또한 ‘빛’과 ‘어둠’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빛’의 모습들이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어둠’의 측면을 간접체험 해봄으로써 통일이 야기할 혼란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더불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내적통합, 즉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일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주 요 어: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토마스 브루시히, 전환기 문학,
독일 통일, 통합, 빛과 어둠, 정체성
학 번: 2014-20908

목 차

1. 서론	1
2. 전환기 문학: 토마스 브루시히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6	
2.1 전환기 문학의 정의	6
2.2 대표적 전환기 문학 작가 ‘토마스 브루시히’	9
2.3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작품 특성	12
2.3.1 작품 소개	12
2.3.2 소재의 상징성	14
2.3.3 서술적 특성	19
3. 인물과 사건을 통해 본 전환기 동독사회의 ‘빛’과 ‘어둠’ ··22	
3.1 ‘빛’과 ‘어둠’의 상징적 의미	22
3.2 ‘빛’과 ‘어둠’의 대립: 변화 추구 혹은 체제 유지	23
3.3 ‘빛’의 순간: 장벽 붕괴 후의 환희	32
3.4 ‘빛’과 ‘어둠’의 혼재: 실망하는 동독인과 불평하는 서독인 ·41	
4. 인물의 정체성 변화 양상	48
4.1 사회변화가 야기한 인물의 정체성 손상	49
4.2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유지 혹은 상실	53
4.3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적응 실패로 인한 정체성 혼란	57
4.4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추구를 위한 정체성 변화	61

5.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68
5.1 동서독 남녀의 결합.....	68
5.2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차이 극복.....	78
5.3 과거 대면을 통한 상처 치유와 화해.....	85
5.4 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	89
6. 결론.....	92
후 주.....	96
참고문헌.....	116
Zusammenfassung.....	121

1. 서 론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금방이라도 ‘통일’이라는 대변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독일의 통일 사례에 비추어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¹⁾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 때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뿐 대변화 이후 독일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동독인과 서독인으로 갈라져있던 독일인들이 상호 간 어떤 갈등과 대립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토마스 브루시히 Thomas Brussig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Wie es leuchtet』²⁾는 1989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환기 독일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에 동독 사람들은 동독 사회를 탈출하여 서방세계로 향하기도 하고 동독 내에서 체제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적 사회주의를 꿈꾸기도 한다. 이 작품은 동독의 사회 전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동독 사회가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다. 동독 사람들이 꿈꾸던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서독 사회는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그 자체이며, 동독인들은 이상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서독인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좌절한다. 이렇듯 환희의 순간 뒤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어떤 내·외적

1) 독일의 통일은 ‘재통일 Wiedervereinigu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통일 Vereinig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물과 기사들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에 입각하여 ‘재통일’이라는 용어보다 ‘통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재통일 혹은 통일을 모두 ‘통일 Vereinigung’이라는 공통된 용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2) Thomas Brussig: 『Wie es leuchtet』, Frankfurt am Main 2004.

*이하 작품명 『Wie es leuchtet』는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로 표기한다. 본 작품에서 인용한 것은 본문과 각주에 ‘TB’로 표기하고 그 옆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가 브루시히의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난다. 또한 갈등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혹은 변화시키고 적응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 된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통일이라는 문제가 실제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된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가올 부정적인 상황 또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 다르지만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리의 사회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때 ‘전환기 문학 Wendeliteratur’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 전환기 문학은 소재와 내용면에서 전환기 독일 사회를 다루고 있고, 통일 후의 관점에서 통일 전후의 독일 사회를 성찰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독일 사회, 특히 동독의 어려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우리는 전환기 문학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정 및 독일 통일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동·서독인 간의 갈등과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극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문학 속 사회는 가상현실이면서도 개인의 삶과 실제 사회의 상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전환기 문학 속에 나타나는 사회상이나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 인물들을 둘러싼 사회 내의 갈등양상 등은 추후에 우리가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은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예학적 및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간접체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위해 좋은 교육적 도구가 된다.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하

3) 참조. Frank Grub: Wende und Einheit im Spiegel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Berlin 2003, 71-81쪽.

는 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Weltliteratur’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재 Gemeingut der Menschheit”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읽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⁴⁾ 이는 문학이 전 세계인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와 경험을 포함하며 모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문학의 중요한 가치는 장르가 갖고 있는 문예학적 가치이므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문학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특히 독일의 현대문학을 연구할 때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분단과 통일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방적이자 정치적인 처사”이며 실제로 “영토의 변화는 창의적인 작가에게는 결코 적절한 창작 모티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⁵⁾ 그러나 본 연구는 분단이나 통일과 같은 정치적 소재를 문학 창작의 모티프로 삼느냐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그 당시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내지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일에 중점을 둔다. 특히 동독 출신의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동독 체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회상하는 수단인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학은 “기억이 저장된 공간이자 기억을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며,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을 매개하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박희경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 한다.⁶⁾

개인적 경험과 기억의 인정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방향이 모색 된다는 말처럼 통일 독일 사회에서 하나 된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민주 시민의 일원이 되어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동독인들이 향유하던 일상의 삶을 기억하고 더 나

4) 권오현: 「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 『해세연구』, 제10집, 2003, 25쪽.

5) 박설호: 「현대문학: 문학 현장과 체험 현실-미완의 동독문학, 그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28집, 2013, 126-127쪽.

6) 박희경: 「독문학: ‘트라반트 세대’의 멜랑콜리 - 동독에 대한 문학적 기억의 방식들」. 『독어교육』, 제47집, 2010, 402쪽.

아가 단절되거나 부정당한 과거의 기억과 함께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라이시히 Rolf Reißig는 동독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심리에서부터 ‘동독향수 Ostalgie’가 시작되는 것이며 “과거의 정체성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⁷⁾고 강조한다. 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기억과 동독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전환기 문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전환기 문학 작가인 토마스 브루시히를 비롯한 잉고 슐체 Ingo Schultze, 야나 헨젤 Jana Hensel 등은 대부분 동독 출신 작가들로 이들이 전환기 문학에서 더 부각되는 이유는 실제 동독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을 풍부한 문학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해 서독의 작가들보다 더 통찰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박설호는 문학이 인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며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심리적 상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독 문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본 연구는 토마스 브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중심으로 전환기시대를 살아가던 인물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새로운 시대라는 ‘빛 Licht’과 그 이면의 상반된 ‘어둠 Dunkelheit’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빛’과 ‘어둠’은 ‘흑(어둠)과 백(빛)’, ‘죽음(어둠)과 삶(빛)’과 같은 대립적 상징체계의 출발점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선과 악’, ‘이상과 현실’이라는 이원론적 의미를 나타낸다.⁹⁾ 에겔란트 Håvard Egeland도 ‘빛’의 메타포가 갖는 “양가성 Ambivalenz”에 대해 말하면서 빛은 항상 밝음과 상반된 것을 함께

7) Rolf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Das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modell und seine Ergebnisse. In: Hannes Bahrmann; Christoph Links(Hrsg.): Am Ziel vorbei. Die deutsche Einheit - Eine Zwischenbilanz, 2005, 305쪽.

8) 참조. 박설호: 앞의 논문, 125쪽.

9) 참조. 르네 위그 저,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74, 114쪽.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빛’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나 낙관적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움, 공포,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 또한 야기한다는 것이다.¹⁰⁾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의 ‘빛’과 ‘어둠’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이상적인 미래와 어두운 현실과 같은 대립적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 어휘로써 작품 속 시대상황과 인물들의 모습에 비추어 상징하는 의미를 분석해본다.

브루시히의 작품 속 인물과 그들을 둘러싼 갈등을 전환기 사회의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에 다가올 전환기 시대의 빛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어둠의 측면을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간접경험 해봄으로써 통일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위험과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전환기 독일 사회에서 인물들이 인물 내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회와 겪는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정체성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거쳐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해본다.

10) “Auf der anderen Seite lässt sich argumentieren, dass die Leuchtmetapher auch eine Ambivalenz besitzt. Man kann von leuchtenden Tagen sprechen (positiv), aber auch dass man Negativerscheinungen zum Leuchten bringen soll, z.B. Peinlichkeiten, Ängste, Enttäuschungen.”

Håvard Egeland: Licht und Chaos Thomas Brussigs Wendezeitpanorama Wie es leuchtet, The university of Bergen, Bergen 2008, 55쪽.

2. 전환기 문학: 토마스 브루시히의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2.1 전환기 문학의 정의

대표적인 전환기 문학 작가인 토마스 브루시히의 작품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환기 문학 Wendeliteratur’과 ‘전환기 소설 Wenderoman’이라는 용어가 여러 연구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전환기 소설은 전환기 문학의 일종이자 하위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 장에서는 브루시히를 비롯한 전환기 문학 작가들과 전환기 문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환기 문학’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용하기로 한다.

‘전환기 문학’은 독일 통일 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기록한 기록의 문학으로 현대사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김용민은 전환기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동독 출신 작가들은 자신들의 존재기반이었던 동독이 붕괴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실존적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작품에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둔다.¹¹⁾

1990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독문학은 서독 식으로 재편되었고 동독문학 전체를 청산하려는 서독의 의지로 인하여 동독문학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를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문학사회 Literaturgesellschaft’가 해체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천직으로 여겼던 동독 작가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실업자로 전락하고 만다.¹²⁾ 이러한 문학계의 흐름 속에서 라디쉬 I. Radisch는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화된 젊은 작가들이 등단하면 그들에 의해 동독문학이 자연스럽게 사라

11) 참조. 김용민: 「통일과정에서의 독일문학 - 개혁사회주의자의 꿈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길찾기」. 『독일문학』, 제59집, 1996, 136쪽.

12) 참조. 류신: 「통일 이후 독일 문학계의 지형변화」.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7집, 2006, 165쪽.

질 것”¹³⁾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라디쉬의 예측과 달리 동독문학은 통일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았고 동독 출신 작가들은 통일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며 독일 문단에서 “순수 동독문학”¹⁴⁾의 시대를 꽃피우고 있다. 흔히 동독 작가들은 1세대부터 3세대로 구분되는데 통일 후 전환기 문학을 주로 다루는 작가들을 3세대 작가로 칭하며 대표 작가들로는 토마스 브루시히 외에 잉고 술체, 우베 콜베 Uwe Kolbe, 브리기테 부르마이스터 Brigitte Burmeister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1950~1960년대에 출생하여 동독에서 유년기 및 청소년기를 보내고 90년대 이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로 “사회주의의 땅 안에서 태어난”¹⁵⁾ 세대를 상징한다. 이전 세대의 동독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의무를 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독의 3세대 작가들은 동독 사회가 갖는 내부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작품은 주로 ‘새로운 자유 혹은 위협’과 ‘새로운 정체성 추구’와 같은 통일 독일에서의 현실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동독에서의 ‘기억’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¹⁶⁾ 동독에 대한 문학적 기억은 현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루시히는 동독을 “이야기의 보고 ein unerschöpfliches Reservoir an Geschichten”이자 “소설가의 천국 ein Erzählerparadies”¹⁷⁾이라고 칭하며 문학적 소재로서 동독이 갖는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동독 출신 작가들은 동독 시절에 대한 기억을 문학의 소재로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동독문학에 ‘현재성’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기 문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들 작가의 작품들은 동독에서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봄으

13) Iris Radisch: Zwei getrennte Literaturgebiete. Deutsche 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in Ost und West. In: Heinz Ludwig Arnold(Hrsg.): DDR-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2000, 26쪽.

14) Wolfgang Emmerich: Kleine Literaturgeschichte der DDR, Berlin 2000, 503쪽.

15) Uwe Kolbe: Hineingeboren. Gedichte 1975~1979, Berlin, Weimar 1980, 46쪽.

16) 참조. 이상금: 「하나의 독일 문학, 정체성의 탐색과정」. 『오늘의 문예비평』, 28호, 1998, 114쪽.

17) Jörg Magenau: Kindheitsmuster. Thomas Brussig oder Die ewige Jugend der DDR. In: Thomas Kraft(Hrsg.): Aufgreissen. Zur Literatur der 90er. München 2000, 41쪽.

로써 새로운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3세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들의 작품에는 동독 시절의 슬픔이나 분노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동독에서의 기억을 “잘 팔리는 상품”으로 수단화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동독출신의 비평가 리히터 S. Richter는 비판한다.¹⁸⁾

전환기 작가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브루시히를 연구한 국내 연구 논문으로 박찬일과 정영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찬일은 브루시히의 작품 『존넨알레 Am kürzen Ende der Sonnenalle』를 연구하면서 작품 속에서 동독을 오스탈기적 관점을 뛰어넘어 소중하고 그리운 고향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작품 내 동독인들을 통해 브루시히가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힌다. 과거 동독에서의 삶에는 분명 좋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 동독인들이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었으며 체제와 환경의 차이를 떠나 서로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하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기억’과 ‘회상’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¹⁹⁾ 한편 정영호는 브루시히의 작품 『우리 같은 영웅들 Helden wie wir』과 『존넨알레』를 대상으로 회상을 통한 기억과 망각이 문학작품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회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브루시히가 동독의 과거 극복의 방법으로 제안한 회상의 방식이 진정한 과거 극복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²⁰⁾

18) Steffen Richter: Zwischen Melancholie und Endspiel. Die Literatur hat mit der DDR noch nicht abgeschlossen. In: Neue Zürcher Zeitung, 2002년 4월 27일.

19) 박찬일: 「‘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 Thomas Brussig의 『존넨알레』에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20) 정영호: 「회상을 통한 동독과의 화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0.

2.2 대표적 전환기 문학 작가 ‘토마스 브루시히’

1964년 12월 19일 동베를린 지역에서 태어난 토마스 브루시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배제한 새로운 시선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파헤친 작품을 발표하며 현재 독일 문단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동독 3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91년 『물의 색깔 Wasserfarben』로 데뷔한 이후, 1995년에 발표한 『우리 같은 영웅들』이 고대하던 전환기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전환기 소설 대표작가로 인정받는다. 동·서베를린의 경계선으로 인해 하나의 거리가 동쪽은 동베를린, 서쪽은 서베를린에 속하게 된 존넨 거리의 젊은이들을 코믹하게 그린 『존넨알레』(1999)는 단기간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연극, 방송극, 영화로 각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후 『남자가 되기까지의 삶 Leben bis Männer』(2001),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2004), 『베를린 광란파티 Berliner Orgie』(2007), 『축구심판 페르티히 Schiedsrichter Fertig』(2007) 등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확고한 지명도를 확보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병역근무를 한 뒤 박물관 경비원, 여행 가이드, 통역사, 호텔 수위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한 그의 경험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직업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동독 붕괴 후 영화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는 두 번째 소설 『우리 같은 영웅들』이 성공하면서 프리랜서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살아간다.²¹⁾ 극작을 전공한 작가답게 브루시히의 문장은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무엇보다 위트가 있어 흔히 브루시히를 두고 ‘전환기 위트 소설의 원조’라고 칭한다.

『우리 같은 영웅들』은 독일 통일 후 침체되어 있는 문학계에 “올 것이 왔다”, “위대한 통일소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그가 작품에서 선보인 풍자와 위트에 대해 “거친 발명 정신에 기반을 둔 용감한 책”이며

21) Susanne Bach: BRUSSIG, THOMAS, in: KinderundJugendmedien.de, 2013년 1월 1일.

“환상적인 착상의 불꽃놀이”라는 등의 찬사가 쏟아졌고 그는 일약 전환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른다.²²⁾ 브루시히를 주목받게 한 『우리 같은 영웅들』은 문학성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하였으며 동독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을 탁월하게 흔들고 비틀며 조롱하는 풍자의 기법을 선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누리는 브루시히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작품에서 동독 사회를 비판하는 시각은 서독인보다도 더 서독인 같은, ‘신서독인 Neuwessi’이라고 할 만큼 서독 편향적이며 서독의 주류가 바라는 대로 동독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시도하면서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유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독의 문학계를 중심으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²³⁾

“풍자적인 전환기의 기록가 satirischer Chronist der Wende”²⁴⁾라고 평가받는 브루시히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동독사회를 꼬집은 『우리 같은 영웅들』과 달리 그 다음 작품인 『존넨알레』에서는 과거에 상상을 더함으로써 동독을 진실 규명의 대상이기보다 즐거운 상상의 대상으로 다루며 “당시 동독에서의 삶에 대한 정당성 Legitimierung des damaligen Lebens in der DDR”²⁵⁾을 이야기한다.

박희경은 요헨 슈미트 Jochen Schmidt의 『성공담 Triumphgemüse』²⁶⁾에서 ‘기억’을 다루는 방식을 브루시히와 비교한다. 슈미트는 작품 속에서 동독에서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선택적 기억상실 내지는 망각”²⁷⁾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집중하여 사랑했던 것에 대한 슬픔을 이

22) 참조. 김누리: 「동독역사의 알레고리적 회화화-토마스 브루시히의 소설 『우리 같은 영웅들』」. 『독일문학』, 제104집, 2007, 92-93쪽.

23) 참조. 위의 논문, 110쪽.

24) Jochen Kürten: Thomas Brussig lässt die DDR weiterleben, in: DW, 2015년 02월 25일.

25) Ayoe Quist Henkel: Versuch einer Charakteristik der Erzählperspektive und deren Beitrag zu lustigen und lachhaften Elementen in Thomas Brussig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In: Klaus Bohnen; Bjørn Ekmann(Hrsg.): Text & Kontext.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teraturforschung in Skandinavien. München 2002, 122쪽.

26) Jochen Schmidt: 『Triumphgemüse, Geschichten』, München 2000.

27) 박희경: 앞의 논문, 394쪽.

야기하고 있는 반면, 브루시히는 ‘선택적 기억’과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통해 과거와의 화해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정미경도 마찬가지로 브루시히의 작품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상의 기법은 ‘과거와의 화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동독에 대한 브루시히의 회상 태도가 작품에 따라 용서와 비판, 그리고 미화로 변해가면서 역사적 사실을 유희화하며 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기억을 다룬다는 점을 이야기한다.²⁸⁾ 브루시히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브루시히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터부시되던 ‘슈타지 Stasi’ 같은 테마를 다루면서 ‘문화적 과거극복의 창시자’로 간주되었다.²⁹⁾

이처럼 브루시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라도 과거의 흔적을 따라 역사적 기억과 개인의 상처를 가볍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유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를 곁들여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같은 3세대 작가로 분류되는 잉고 술체나 볼프강 힐비히 Wolfgang Hilbig가 동독 시절의 기억을 과거의 ‘상처’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브루시히만의 차별화된 시각을 잘 보여준다.

28) 참조. 정미경: 「독문학: 성찰의 기억에서 유희의 회상으로 - 동독/통일문학에서의 기억방식의 변화」. 『독어교육』, 제35집, 2006, 381-382쪽.

29) “Da sich der Autor bereits Mitte der 1990er Jahre an Tabuthemen (z.B.: Stasi) heranwagte, gilt er als Wegbereiter einer literarischen Vergangenheitsbewältigung.”
Susanne Bach: 앞의 기사.

2.3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작품 특성

2.3.1 작품 소개

『존넨알레』가 영화화되고 나서 브루시히는 독일에서 명실상부한 스타 문학 작가가 되어 28개국에 그의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국내외에서 인터뷰를 하며 “독일 문학의 간판스타 Aushängeschild”가 되었다.³⁰⁾ 그런 그가 2004년에 내놓은 작품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이다.

이 작품은 약 20명이 넘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출신의 인물들이 독일을 둘로 나누던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적 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600장에 달하는 긴 호흡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브루시히는 여러 인물을 마치 “실들을 교차시키듯 die Fäden beginnen, sich zu kreuzen”³¹⁾이 등장시켜서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1989년 여름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혁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양한 인물들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연히 마주치며 실타래처럼 엮여서 나타난다.

브루시히는 그의 소설을 통해 “허구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기록과 문학적 자유 사이의 경계”를 지운다.³²⁾ 바흐 Susanne Bach는 작품 속 인물인 기젤라 블랑크의 일생이 실제 인물인 그레고리 기지의 이야기와 유사함을 예로 들면서 브루시히의 작품을 “실화소설 Schlüsselroman”이라고 칭한다.³³⁾

30) Jochen Kürten: 앞의 기사.

31) Janna Degener: Wenn plötzlich alles anders ist... Thomas Brussigs Roman “Wie es leuchtet”, in: Die Berliner Literaturkritik, 2005년 3월 8일.

32) “Brussig treibt seine Romanhandlung zwischen Fiktion und Realität voran, verwischt die Grenzen zwischen Dokumentation und literarischer Freiheit.”
Jochen Kürten: 앞의 기사.

33) “Der Roman lässt sich auch als Schlüsselroman lesen. Es lassen sich beispielsweise Parallelen zwischen der Biographie der Figur Gisela Blank und des realen Gregor Gysi erkenne, womit narrativ codiert Anspielungen auf die

문학 비평계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몇몇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위대한 전환기 소설로 본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브루시히가 이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비꼬기, 풍자적인 이야기 방식이 상실되었으며, 인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내용의 깊이가 없다고 비판한다.

오버호프 Evelyn Overhoff는 이 작품에 대해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1989년 가을 날의 환희를 다시 떠올리도록 기여하는 작품”³⁴⁾이라고 평한다. 우울한 동독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1989년 가을날에 시작된 빛은 동독과 서독 양쪽을 모두 사로잡았고 당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통일이 된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장벽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만큼 그 때의 빛은 독일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브루시히의 소설은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리고 기쁨의 한 부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레단프 Susanne Ledanff는 브루시히의 작품에 대해서 혁명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너무 ‘빛’의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높여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평한다.³⁵⁾

außerliterarische Welt vorgenommen werden.”

참조. Susanne Bach: 위의 기사.

34) “der Roman dazu beitragen kann, dass wir uns wieder an die Euphorie der Herbsttage 1989 erinnern können”

Evelyn Overhoff: “Endlich der große Deutschlandroman? Thomas Brussigs *Wie es leuchtet*”. In: http://www.ruhr-uni-bochum.de/deutschlandforschung/PDF_Dateien/idfp37.pdf(urspr. IDF-PUBLIK 37/2004 v. 08.12.2004), 12쪽.

35) “eine Tendenz zu Überhöhung der ‘leuchtenden’ Sternstunden des Revolutionsjahrs”

Susanne Ledanff: “Neue Formen der “Ostalgie” - Abschied von der “Ostalgie”? Erinnerungen an Kindheit und Jugend in der DDR und an die Geschichtsjahre 1989/90”. In: *Seminar.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43.2, 2007, 191쪽.

2.3.2 소재의 상징성

은유나 환유 과정에서 모든 언어는 “문명적인 관념과 이미지를 내부에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조”³⁶⁾된다. 이처럼 문학에서 사용되는 은유와 상징은 ‘언어’와 ‘문명적 관념’의 만남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브루시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재가 문명적 관념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 ‘빛’의 상징성

상황적 맥락에서의 ‘빛’과 이에 반대되는 대립적 측면으로서의 ‘어둠’을 상징해 볼 수 있으나, 우선 작품의 제목인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서의 빛이 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빛을 내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작품의 전체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작품의 제목과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빛’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빛나던 시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레나’는 작품 속에서 전환기를 가장 화려하게 겪은 인물로 인물 자체가 가장 빛나던 그 시기가 바로 작품의 제목에서 의미하는 ‘빛’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숨 막힐 듯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한 번뿐인, 전에 없던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몇 주간을 구현해낸 그녀는 도시에 변화와 혁명,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욕망을 일으켰다.³⁷⁾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동독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월요 데모의 현장에서 동독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변화가 오길 바라며 모두 모여 있지만 구호를 외치는

36) 김춘식: 「한국문학: 미적 근대성과 근대적 시어-밤, 어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8집, 2005. 94쪽.

37) TB: 90쪽. ☞

법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 때 구급차 위에 올라온 레나는 당당하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희망적인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일순간 침묵이 번질 만큼 벽찬 감동을 느낀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빛을 발하게 하며 불을 지피고 기대감으로 물들게 만든 것이 바로 변화와 혁명에 대한 기대였던 것이다. 이윽고 변화가 찾아오고 장벽이 열리는 순간 기쁨에 벽찬 사람들의 모습은 또 한 번 ‘빛’을 연상시킨다. 레오 라트케는 이를 보고 “동독 사람들의 머리 위에 빛 한줄기가 떠있는 듯 Es lag ein Leuchten über diesen Menschen”하며, “눈에서 빛이 나는 듯하다 Die Augen stralten(TB 135)”고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빛’은 레나의 큰 오빠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셔터에서 만들어내는 순간의 ‘섬광’ 그 자체를 의미한다. 레나의 큰오빠는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잡아내는 직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 사회에 일어난 전환기의 시작부터 격동의 순간, 전환기 후의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작품의 처음과 끝에 걸쳐서 모든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장면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는다. 김현아에 따르면 사진은 “빛의 작용에 의해 쓰인 글”³⁸⁾로 이 중요한 일들을 사진으로 남길 때 터지는 카메라 불빛 자체가 ‘빛’을 나타내는 것이며, 과거의 모습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이라는 ‘기록물’은 ‘빛’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 ‘사진’의 상징성

사진과 문학은 “인간 욕구를 표출한다는 점”³⁹⁾, “사건이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고발, 해학적인 서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묘사하는 예술이라는 점”⁴⁰⁾에서 유사하다.

38) 김현아: 「소설에 나타난 사진 이미지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8집, 2011, 57쪽.

39) 위의 논문, 57쪽.

40) 김경란: 「사진의 상호매체성 - 사진과 문학, 영화, 회화의 상호작용성 -」. 『독일언어문학』, 제46집, 2009, 386쪽.

작품의 주요 인물인 레나의 큰오빠는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진작가로 그의 사진은 사실적인 사건을 기록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여 서사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레나의 큰오빠가 찍은 사진들은 “정보와 형식, 기록과 상징이 어우러져 하나의 은유를 만들어내는”⁴¹⁾ 상징적인 매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시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빠의 사진을 통해서야 Alles, was ich über diese Zeit weiß, weiß ich von deinen Bildern”라고 하는 레나의 말처럼 작품 전반적으로 전환기 시대의 독일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 ‘홍수’의 상징성

에켈란트는 독일 사회에 다가온 전환기 자체가 ‘홍수’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한꺼번에 물 밑 듯 쏟아진 전환기는 커다란 물결이 옛 것을 다 휩쓸고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동독을 혼란에 빠트리며 동독의 옛 모습을 빠르게 지워버렸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작품 서문에서 홍수가 일어나 레나의 큰오빠가 찍은 사진을 모두 망가뜨린 사건은 전환기라는 거대한 물결이 동독 사회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 독일에서 동독의 모든 것을 ‘청산’하려는 서독인의 시선을 떠오르게 한다.⁴²⁾

작품 속에 등장한 ‘거대한 홍수’는 레나의 큰오빠가 찍어둔 동독에서의 기록을 모두 휩쓸어가 버린다. 작품 서문에서 소개된 “세기의 대홍수 Jahrtausendhochwasser(TB 11)”가 망가뜨린 것은 레나가 가장 좋아하던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들 schön wie nie(TB 12)”로 이 사진들은 동독 사회와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키고 뒤흔들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 다시 말해서 ‘빛의 순간’을 담은 것이었다. 당시의 기억을 보관해 놓은 이러한 사진들이 거대한 물결에 의해 한 순간에 휩쓸려가 엉망이

41) 위의 논문, 387쪽.

42) Håvard Egeland: 앞의 논문, 54쪽.

된 상황은 과거의 순간이 갖는 가치의 경중과 관계없이 지나고 나면 모두 지나간 과거일 뿐 의미도, 가치도, 빛도 모두 아래진다는 허무주의적 시각을 나타낸다.

또한 ‘홍수’로 모든 게 사라져 버린 상황은 그토록 갈망하던 혁명도, 혁명 이후의 기쁨과 환희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바르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 변화에 익숙해지자 사람들은 다시 사회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는 동독 정체성을 추구하고 오스탈기가 유행하는 등 다시 과거 동독에서의 일상으로 회귀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실제 독일의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꺼내 아쉬움과 회한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과거 세대 동독 작가들의 태도였다면, 브루시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홍수로 사진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과거의 소중한 기억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브루시히는 사라진 옛것을 아쉬워하며 상상 속에서 미화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사진들에 담긴 이야기를 ‘글’이라는 다른 수단을 통해 재현해내고자 한다. 이는 기억을 담고 있는 수단의 변화, 즉 매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수가 적극적인 기억의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됨을 나타낸다.

- ‘카오스 이론’과 ‘나비효과’의 상징성

레나는 남자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동독을 탈출한 후 사고의 변화를 겪게 되고 체제 저항적으로 변화한다. 그녀는 헝가리에서 돌아온 큰 오빠⁴³⁾를 만난 카페에서 “카오스 이론 Chaostheorie(TB 53)”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허리케인을 일으킬 만큼 거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설명하면서 동독 사회에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혼란을 일으키고 이내 거대한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43) 작품 속 ‘레나의 큰오빠 Lenas großer Bruder’는 레나의 친오빠가 아니라 그저 아는 오빠를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다. 이는 ‘이성’으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레나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있다는 기대에 찬 주장을 펼친다.

“그 얘기 들어봤어?” 반기면서 그녀가 말을 꺼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새로운 이론이 있대.” 그녀는 균형을 잃지 않게 조심하면서 의자 하나를 끌어당겼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얘기를 계속했다. “모든 것이 혼돈이라는 거지!” 그녀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위해 두 손을 허공에 펼쳤다. 아직도 숨을 내뿔던 그녀는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더 깊게 숨을 쉬어야 했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타이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대.”⁴⁴⁾

레나는 카오스 이론의 끝이 거대한 허리케인인 것처럼 자기가 한 마리 나비처럼 스케이트를 타고 혼란을 일으키면 연쇄작용을 통해 폭풍과도 같은 ‘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 ‘끝’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드러나지도 않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레나가 말하는 그 ‘끝’은 카오스 이론을 처음 듣는 큰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동독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가슴 속에 마치 허리케인 같은 흥분을 일으킨다.

“[...] 그런 의미라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언젠가 끝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 레나의 큰오빠는 할 말을 잃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쉽다니 하고 어리둥절해 하며 그는 말했다. “언젠가 무슨 결말이 나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있다니까!” 레나가 말했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아주 간단해.”⁴⁵⁾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는 동독 사회에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작품 속 이야기들은 모두 전환기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배경 속 개인의 이야기들은 인물과 사건들이 마치 ‘카오스 이론’처럼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44) TB: 53쪽. ☞

45) TB: 54쪽. ☞

있다.⁴⁶⁾ 또한 구조적으로 레나가 작품 초반에 말한 ‘나비효과’는 나중에 글의 끝맺음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하여 수미쌍관식 구조를 이루며 이야기를 완성시킨다. 태국에서 발생한 위르겐 바르테의 평화로운 죽음을 두고 ‘또 다른 나비의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독일 사회에 평화의 허리케인이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2.3.3 서술적 특성

- 사회 현실의 반영

바흐가 브루시히의 작품을 두고 “실화소설”⁴⁷⁾이라고 평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독일의 사회 현실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토대로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환기 시대에 독일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해갔는지를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카롤라가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건너간 후 서독 대사관에서 여권을 만들고 국경을 통과하여 탈출하는 모습은 당시 동독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독을 탈출했는지, ‘탈출상’을 실감나게 재현해준다. 또한 동독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 했는지는 동독을 탈출한 파울과 취재차 헝가리를 방문한 레나의 큰오빠가 탈동독자수용소에서 만난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레나의 큰오빠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내준다.

한 가족이 초콜릿 바를 먹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큰 아들은 매우 맛있게, 작은 아들은 반항적으로, 아버지는 녹초가 된 듯한 모습으로, 어

46) Håvard Egeland: 앞의 논문, 72쪽.

47) Susanne Bach: 앞의 기사. (2.3.1장 참조)

머니는 지극히 행복하게.⁴⁸⁾

인용문에 제시된 장면을 레나의 큰오빠는 사진으로 담고 있고, 같은 모습을 레오 라트케는 글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둘이 묘사한 동독인들의 모습은 마치 당시의 실제 상황을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

한편 프리츠 보데는 동독에서의 삶에 대한 책을 서독에서 출판한다. 이를 통해 동독에서는 출판물 검열제도에 가로막혀 출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독의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하던 동독 작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책 출판 후 밀려오는 서독에서의 강연 요청으로 동독과 서독을 오가는 프리츠 보데의 일상에서 ‘서독체류 허가제’와 같은 사회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동독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기 이전이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서독의 TV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냈던 동독 사람들의 모습이나, ‘월요 시위’ 현장의 생생한 모습, 시위 진압과 연행 과정의 현실적인 묘사 또한 레나와 다니엘 데티엔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출판물 검열 폐지로 인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출판사에 찾아가는 발데마르 부데의 모습이나, ‘언론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마음대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레나의 큰오빠를 통하여 동독에 찾아온 사회 변화 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으며, 장벽의 붕괴 이후 독일 사회를 점점 혼란으로 빠트린 ‘화폐통합’ 문제라든가 ‘슈타지 논란’, ‘자유선거’의 과정 등도 이 작품 속에 모두 녹아들어가 있다.

그러나 브루시히는 텍스트 서술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뼈대가 되는 배경지식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 역사적 실재를 재현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회상’이라는 능동적 상상을 통해 과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⁴⁹⁾

48) TB: 29쪽. ☞

49) 참조. 정영호: 앞의 논문, 2쪽.

- 작중 인물을 통한 서술(레나의 큰오빠)

작품 전체를 통틀어 서문에서 유일하게 1인칭 시점이 사용된 부분은 서문에 등장하는 레나의 큰오빠 이야기이다. 이것으로 보아 작품 속에서 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예상한 바대로 작품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건 및 인물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서술적 특징을 보인다. 리히터 Peter Richter는 레나의 큰오빠를 두고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체를 서술하는 인물 halbherzig als Erzähler des Ganzen”⁵⁰⁾이라고 평한다. 레나의 큰오빠는 전통적 의미에서 말하는 주요 인물 또는 서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사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의 직업을 사진작가로 설정한 것은 사진을 통해서 시각적 기억을 소생시키려는 브루시히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결국 레나의 큰오빠는 항상 모든 사건의 뒤에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기억을 소생 및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레나의 큰오빠는 의도적인 만남이었던 우연에 의한 스쳐감이었던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마주친다.

레나의 큰오빠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장 좋은 사진은 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가장 좋은 사진작가는 눈에 띄지 않는 사진작가인 것이다.⁵¹⁾

카메라 뒤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훌륭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낚아챌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직업관과 달리 레나의 큰오빠는 작품 속 모든 내용에 등장하여 그 사건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명확하게 어느 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채 정체성을 숨기려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는 그에게 만큼은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끝까지 큰오빠도 아닌 그에게 ‘레나의 큰오빠’라는 호칭으로 제3자

50) Peter Richter: Nobelpreis, ich komme! Thomas Brussig, der Meister des kleinen Witzes, will Großschriftsteller werden. In: FAZ, 2004년 9월 26일.

51) TB: 93쪽. ☞

처럼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인물과 사건을 통해 본 전환기 동독사회의 ‘빛’과 ‘어둠’

3.1 ‘빛’과 ‘어둠’의 상징적 의미

‘빛’과 ‘어둠’은 사회학적 상상력에 의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된다. 비극적인 역사적 상황은 흔히 ‘어둠’과 ‘밤’의 이미지를 ‘현실의 알레고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반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 혼돈과 분열을 극복해낸 ‘이상 세계의 알레고리’는 ‘빛’과 ‘불’의 이미지에 적용된다.⁵²⁾ 보편문학의 관점에서 독일 문학에 사용된 이미지 역시 보편적인 상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시대적 상황, 시대의 전개와 함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변화하는 것으로, 암울한 현실로서의 ‘어둠’과 이에 대립되는 이미지로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기대라는 ‘빛’의 관점에서 브루시히의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속의 사건들로 예를 들어보면 혁명의 여신으로서 동독 사회에서 일어난 전환기를 주도하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아간 레나라는 인물의 행동 및 인물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빛’을 상징한다. 그러나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합되어 갈 즈음 과거 동독에서 레나가 발표하여 1위가 되었던 노래를 두고 그녀는 과거 친구였던 마른 야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녀의 노래가 ‘슈타지를 대변하는 노래’였다는 오명을 쓰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등 ‘어둠’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⁵³⁾ 또한 전환기의 격동 이후 환희에 휩싸

52) 참조. 김홍진: 「특집: 문학 언어와 담론; 한국 현대시 작품에 나타나는 불/빛의 이미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2010, 28쪽.

53) 참조. Håvard Egeland: 앞의 논문, 74쪽.

여 ‘미쳐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동독에서 와일드 빌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에 도취하여 정신없이 즐기는 도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병을 맞고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렇듯 빛의 순간이 등장한 후에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인물 저마다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 ‘빛’과 ‘어둠’의 개념은 시대 상황 및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대립적 개념으로서의 ‘빛’과 ‘어둠’이 작품 속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상황 및 맥락에 따라 분석해본다.

3.2 ‘빛’과 ‘어둠’의 대립 : 변화 추구 혹은 체제 유지

고향 Heimat은 원래 ‘거주권’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인 동시에 자기의 첫 번째 생애, 유년시절을 보낸 곳과 동의어로 사용된다.⁵⁴⁾ 한 사람이 살아온 정착지가 바로 고향이며, 그 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개인은 추억을 쌓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한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자 하는, 즉 탈피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떠남을 통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틀지어진 자기 정체성을 던져두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동독인들이 헝가리 국경을 통해 동독 사회에서 벗어나 서방세계로 탈출하던 시기에, 작품 속 주요인물인 레나의 남자친구 파울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 그는 “건너간 것 rübermachen(TB 22)”이다.

54) 참조. Anika Schulenburg: “... ich kenne mich hier nicht mehr aus.” Heimatverluste der Wendegeneration in Romanen ostdeutscher Autoren, Hamburg, 2013.

파울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지난 5월 헝가리 정부가 철의 장막을 푸른 국경으로 변화시킨 이래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해졌다. 헝가리 비자가 있는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로 들어오면 다 해결된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이 서방세계로 들어간 것이었다.⁵⁵⁾

레나가 추측한 대로 파울은 정말 동독을 탈출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자기의 이름인 ‘파울 Paul’이 아닌 ‘파울헨 Paulchen’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29살의 남성이 불리기에 적절한 호칭은 아니다.⁵⁶⁾ 구급차 운전기사인 그는 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는 트릭비트라는 밴드의 음향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밴드가 지향하는 음악의 정체성을 형성할 만큼 밴드의 색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그의 밴드 ‘플란 크바드라트’가 틀에 박힌 전형적인 음악을 거부하는 실험적인 음악 ‘트릭비트’를 추구하고 있고, 마치 “네 개의 악기가 각자의 혁명적인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듯한 *es klang, als ob vier Instrumentenvertreter die revolutionären Möglichkeiten ihrer neuen Ware vorführen(TB 18)*” 혁명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파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저항성과 혁명정신을 알게 한다.

그런 그가 동독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밴드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되면서 자기 존재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밴드가 음반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프로듀서에 의해 파울이 담당하던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되지만 아무도 파울의 기분이나 그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55) TB: 22쪽. ☞

56) 독일어에서 명사 어휘 말미에 ‘-chen’을 덧붙이는 것은 ‘작고 귀여운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작은 빵을 나타내거나(Brötchen) 귀여운 소녀(Mädchen)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들은 젊은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그녀의 큰 오빠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파울헨은 끌어들이지 않았다. 파울이 작별 인사를 할 때도 그들은 파울헨에게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젊은 여자에게 파울헨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파울헨은 직장에도, 연습에도 오지 않았다. 파울헨은 그의 노란 트라반트 차와 함께 사라졌다.⁵⁷⁾

더 이상 밴드에서도, 자기가 생활하던 동독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파울은 곧바로 살던 곳을 떠나 헝가리 국경을 건너간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에 방황하다가 기존에 살던 물리적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레나의 큰오빠가 취재차 간 부다페스트의 탈동독자수용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파울은 그동안 알고 있던 순하고 잘생긴 레나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거칠고 황량한 ‘모험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파울헨은 레나에 대해서도, 플란 크바드라트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고 그의 무관심은 진심이었다. 파울헨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더 이상 예전에 그랬던 대로 있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밴드의 특징을 부여하는 그가 사진에 찍히면 안 되는 취미로 라디오를 조립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스물아홉 살의 나이에 더 이상은 파울헨이라고 불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여자 친구와는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다.⁵⁸⁾

파울은 부다페스트에서 레나의 큰오빠를 만나고서도 레나에 대한 걱정, 밴드 멤버들의 안부 묻기와 같은 것을 일체 하지 않고 그저 원래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어떤 일이냐고 물을 뿐이다. 그동안 파울은 ‘파울헨’이라는 호칭에 갇혀서 자기의 나이와 본성에 걸맞지

57) TB: 21쪽. ☞

58) TB: 31쪽. ☞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동독을 떠난 곳에서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동독에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화해 있는 것이다. 파울은 ‘떠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타인에 의해 보여 지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것이다.

앞서 본 인물 파울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삶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났다면, 카롤라는 알지 못하는 서방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호기심,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족을 떠나 서독으로 향한다.

카롤라 슈라이터가 라인 지방에서 온 티로와 함께 달아나버린 것은 사실이었다. 티로는 카롤라에게 베를린과, 자신이 공부하는 사회학, 인종학, 신문방송학 공부와 크로이츠베르크 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공동체 생활에 대해, 그리고 내년을 위해 계획했다는 미국으로의 여행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카롤라 슈라이터는 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삶을 자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59)

처음 듣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큰 환상을 만들어내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분명히 멋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그것이 마치 ‘유토피아’인양 이상화 하도록 하고 자신의 현재를 포기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카롤라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보듯이 동독을 떠나는 일은 비밀비재했고 그 과정 또한 험난하지 않았다. 주변국인 헝가리의 정부가 철의 장막을 푸른 국경으로 변화시킨 것이 변화의 발단이 되어 헝가리 비자가 있는 동독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건너갔고, 그 길로 완전히 서방 세계로 떠

59) TB: 32쪽. ☞

나버리기 시작했다. 동독을 떠난 과울도, 카롤라도 모두 자동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향했다. 과거에는 서독 대사관에서 받은 여권이 있어도 검문소에서 잡히면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과 달리 작품 속 동독의 현실은 국경을 넘어가는 카롤라가 작센 사투리를 쓰며 동독 사람임을 드러내도, 새로 발부 받은 여권이 탈출하고 있음을 표출하고 있어도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 일이 별 일 없이 이뤄지는 것을 보아 그만큼 사회의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더 나아가 이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로 가는 국경은 이제는 더 이상 엄격하게 감시되지 않았고, 티로와 함께 다른 나라에 도달하는 모험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것은 놀이와도 같았다.⁶⁰⁾

한두 명의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하던 상황에서 점차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빛은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빛은 또 다른 빛과 만나 점차 빛의 크기와 세기가 확산되듯이 동독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잠재된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각성제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두들기고 정치적 자각을 깨어나게 하며 곧바로 동독 사회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의 구체화 시키도록 만든다.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을 대표하여 변화를 자각하는 인물은 레나이다. 헝가리로 떠났다가 돌아오기로 한 큰오빠와 그가 가져올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열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레나는 열차가 지연된다는 작센 지방의 사투리가 섞인 여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이것이 마치 “거친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sich endlich an die rauhe Wirklichkeit gewöhnen sollten*(TB 19)” 말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연착 되어 도착한 열차에서도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레나는 열

60) TB: 32쪽. ☞

차 근무 감독원에게 열차가 잘못 도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지만 이내 요즘 세상의 세태에 따라 건너간 것이라고 말하는 답변을 듣고 분노한다.

그녀는 배신감과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는 동시에 이 기분을 파울헨이나 그녀의 큰오빠를 향한 질책을 제외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뼈격거리는 문과 작센 사투리를 쓰는 안내 방송과 더러움과 우울함이 함께 있는 이 역으로 두 남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야 할 것인가? 아니었다. 그럴 수 없었다. 이 결론에 도달하자 젊은 여자는 생전 처음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강력하고 전면적인 증오감을 느꼈다.⁶¹⁾

열차 근무 감독원에서 비난과도 같은 답변을 들은 레나는 갑자기 “강력하고 전면적인 증오감 ein starker, umfassender Haß(TB 25)”을 느낀다. 처음에 레나는 파울과 큰오빠에 대한 원망이라고 여겼지만 후에 이들이 정말로 암울하기만 한 동독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자 불현 듯 정치적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며칠 새에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 남자친구가 건너가 버리고 기다리던 오빠마저 건너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외적인 사건들이 모두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녀는 스스로 행동을 하고, 직접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른다. 외적인 사건이 ‘내면의 어떤 것’을 깨어나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한편 빛과 어둠은 한 쪽이 소멸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소멸시키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동독 사회 체제 내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사회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혁명의 조짐을 사그러뜨리려 노력하면서 변화를 거부한다. 그러나 어둠은 역설적으로 “영혼의 눈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매개”⁶²⁾로 작용하기도 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61) TB: 24쪽. ☞

행동은 오히려 동독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더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하찮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변화의 움직임을 느끼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며 막아보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사람 등 ‘어둠’과도 같은 동독 체제의 그늘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가 작품 속에 나타난다.

동독을 대표하는 차, 트라반트를 생산하는 ‘작센링’의 사장이자 카롤라의 아버지인 헬프리트 슈라이어 박사는 ‘건너가는 것’이 동독의 하위 층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동독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부정한다. 그러나 그녀의 딸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 차 간 헝가리 발라톤 호수의 휴가 촌에서 딸 카롤라가 없어지자 상심에 빠진다. 딸 카롤라가 사라지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 탈출하는 요즘 같은 때에 발라톤 호수는 애초에 휴가지로 부적합한 곳이었다고 자조하며 “신뢰할 수 없는 불량배들 unzuverlässiges Gelichter(TB 27)”이나 찾아오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를 보아 애당초 서방세계로 넘어갈 생각이 없는 동독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의 가치관을 살펴 볼 수 있다.

내 딸이 나한테 절대로 그래선 안 되지, 하고 공학 박사인 헬프리트 슈라이어는 생각했다. 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거대한 작센링의 트라반트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만일 카롤라가 넘어간다면 나는 가장 오랜 시간 사장이었던 사람이 되겠지.⁶²⁾

카롤라가 사라졌을 때, 헬프리트 슈라이어 박사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카롤라가 하필이면 ‘서독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눈이 맞아 사라

62) 김춘식: 앞의 논문, 107-108쪽.

63) TB: 26쪽. ☞

저버렸다는 부정한 사실과 만일 카롤라가 서방세계로 건너간 것이었을 때, 동독 사회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한 것이다. 작센링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는 지위를 한 순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좌절하는 그의 모습은 동독의 사회·경제적 지도층이 사회 변화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과 기득권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표한다. 그러나 헬프리트 슈라이터 박사가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잘 것 없이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게 동독 사회는 탈출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데모 군중이 뭘 어떻게 얻어내려는 건지 헬프리트 슈라이터 박사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구호를 떠들어 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왜들 저러는지 원.⁶⁴⁾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지는 월요 데모로 동독 사회는 더욱 더 소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헬프리트 슈라이터는 TV를 통해 시위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으며 시위대가 원하는 것은 실생활에 전혀 쓸모없는 ‘이상적인 것’이라며 비판한다. 극적이게도 이러한 헬프리트의 쌍둥이 자녀 중 딸은 동독을 탈출하여 떠나 버렸고, 남은 아들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시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의 모습과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자녀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헬프리트 가족은 혼란스러운 동독 사회의 모습을 더욱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요 등장인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마티아스 랑게 검사는 입학식에서도 사람들이 동독을 떠나고 있는 세태가 반영되어 나타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입학자 명단에 있는 학생이 참

64) TB: 60쪽. ☞

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떠났음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한 장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의식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혁명의 의지를 생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티아스 랑게가 “민감한 시국적 사태 das Umschiffen der heiklen Tatsache(TB 49)”라고 말하며 경계하는 것과 달리 학교 관리자들은 전혀 사회의 세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둔감하게 반응하였다. 그 결과 호명한 학생이 등장하지 않는 일이 실제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 지도자층이 얼마나 사회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동독 사회는 굳건한 요새와도 같았고, 그 속에서 생기는 작은 균열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않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루한 입학식에서 미세한 소란만이 작은 자극이었다. 그러던 중 담임 선생이 어떤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담임 선생은 조금 더 크고 또렷하게 불렀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아래에 있는 교장 선생을 쳐다보았다. 교장 선생은 “다음으로 넘어가요!”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강당에 있는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하지만 놀라운 것은 “넘어가요!”하는 주문의 뛰어난 효력이었다. 눈을 감고 잠깐만 있으면 식은 계속 진행되었다.⁶⁵⁾

교장 선생님이 외친 “넘어가요 Weiter!(TB 50)”라는 말은 눈을 감고 지내면 그대로 일상이 흘러갈 수 있다고 믿는 동독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눈 뜬 장님 마냥 사람들의 눈을 잠깐만 감게 하면 아직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것이 바로 동독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다.

65) TB: 50-51쪽. ☞

호명해도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하며 입학식을 마쳤지만, 입학하는 학생들을 호명하며 나눠준 장미꽃 중 네 송이가 양동이에 그대로 남아 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몇 명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왜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에까지 생각이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티아스 랑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동이에 남아 있는 꽃송이를 “착한 어린이 für gute Disziplin(TB 52)”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교장 선생과 검사는 무대의 모서리에 있는 빈 양동이를 바라보았고 마티아스 랑게가 당황하며 말했다. “자, 그럼...”

‘자, 그럼’, 그는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습니다.’⁶⁶⁾

여기서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교장 선생과 마티아스 랑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이를 ‘우리’라고 칭하며 같은 입장에서 한 행동에 대해 서로를 격려한다. 마티아스가 취한 행동은 그동안 동독 국민들을 ‘착한 어린이’라고 어르고 달래며 지배해왔던 기득권층의 사회 유지 방식을 드러낸다.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를 위안하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변화의 빛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치듯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던 변화의 조짐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했음을 이후에 전개되는 작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3 ‘빛’의 순간: 장벽 붕괴 후의 환희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는 레나의 이야기처럼 작은 불씨로 시작했던 변화의 빛은 어느 새 동독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가게 되고 더 이상 어둠의 그늘로 덮여서 가릴 수 없을 만큼 또렷한 빛을 발

66) TB: 52쪽. ☞

산한다. 김홍진은 ‘빛’의 시어가 “해방과 투쟁”을 상징하며, “거대한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이라고 말한다.⁶⁷⁾ 그리고 그 빛은 여러 개의 작은 불빛이 하나로 모여 들었을 때 더욱 더 폭발력 있는 빛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동안 동독 내에서 탈출을 하거나 사회에 저항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변화의 의지가 표출되었다면, 이제는 인물들이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형태가 불분명하고 막연하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완전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시위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 동독 사회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작품의 주요 인물인 레나가 등장한다.

작품의 서술자는 레나가 참여했던 첫 번째 자유 시위가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어놓는 “낭만적인 산책 ein romantischer Spaziergang(TB 84)”이었다고 표현한다.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자유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으로의 시위가 아니라 낙관주의에 찬 설레는 순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작가에 의해 지나간 기억이 미화된 측면이 있으나 시위 현장의 묘사는 당시 동독 사람들의 환희에 찬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때가 레나를 비롯한 동독 사람들이 원하던 자유와 행복으로 점철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둠은 사라지고 낙관주의와 환희가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곳 저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고 구호가 외쳐졌으며, 구호의 박자에 맞춰 신나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역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진정시키려는 듯 보였다. 군중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은 마약을 먹은 사람들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만 웃었다. 자유에 대한 예감은 사람들을 도취시키고 행복하게 했다. 데모가 그렇게 육체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⁶⁸⁾

67) 김홍진: 앞의 논문, 45쪽.

위 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환호와 행복감으로 젖게 한 그 날의 데모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보통 많은 이들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막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전작 『우리 같은 영웅들』에서 브루시히는 동독 민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동독혁명을 묘사한다. 그는 동독의 민중봉기에 민중이 없음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이에 대해 브레머 Ulrike Bremer는 “브루시히는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인 민중봉기를 반어적으로 비틀고, 웃음거리고 삼음으로써 동독의 종식을 초래한 사건을 하나의 ‘익살극’으로 강등 시킨다”⁶⁹⁾고 비평한다. 유사하게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서도 연설할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여기저기 떼 지어 방황하는 모습이나 거대한 두상 앞에 서있는 우둔한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시위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같은 영웅들』에서처럼 평화시위 자체를 하등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차원의 실수이자 레나의 연설을 더욱 더 극적인 감동으로 이끄는 미화에 가깝다.

여러 사람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였으나 누구도 정부에 대한 비판, 혹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대해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그저 깜빡거리는 불빛처럼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레나는 구급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단번에 집중시킨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방황하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독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충성을 표현하며 억눌려 살아오다 보니 동독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병든 채 살아왔던 것이

68) TB: 84쪽. ☞

69) Ulrike Bremer: Versionen der Wende. Eine textanalytische Untersuchung erzählerischer Prosa junger deutscher Autoren zu Wiedervereinigung, Osnabrück 2002, 54쪽.

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터놓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 위에 서 있지만 언제 뭘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막 시작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중들의 박수를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

레나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푸른 눈은 빛이 났다. [...] 하늘은 온통 흩어진 흰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으나, 레나의 가슴은 해방된 것처럼 시원했다. [...]. 기억을 더듬어내는 그녀의 눈동자가 ‘이제 그 뭘가는 지나가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긴장, 섬뜩한 위험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평화로웠다.⁷⁰⁾

레나의 연설에 박수로 공감을 표하는 동독 사람들의 눈에는 이내 미래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변화 의지가 드러나며 또렷한 빛을 낸다. 레나는 막연하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동독 사회의 굴레에서 느끼던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내 그녀는 더 진취적으로 변화하여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예견하기에 이른다.

“저는 어젯밤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널려 있는 나뭇잎들을 높이 던지며 기뻐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낙엽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헤아리기 어려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⁷¹⁾

가을이 가기 전 엄청 큰 일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는 레나의 모습은 일견 비현실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으로 보이긴 하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70) TB: 85-86쪽. ☞

71) TB: 86쪽. ☞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 레나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는 그들이 변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한번도 그 변화의 ‘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변화에 대한 소망을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큰 변화였으며, 그 이상의 것을 처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레나가 마련해주었고, 이는 ‘침묵’이라는 고유한 울림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인 희망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1989년 여름 이후부터 시작된 동독인들의 대량 탈출과 대규모 시위 및 데모로 이어진 평화 혁명의 결과 동독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장벽이 열리면서 독일 사회에 거대한 빛이 쏟아지게 된다.⁷²⁾ 장벽의 붕괴 Mauerfall는 ‘빛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가져다주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빛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시야를 흐리게 하면서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진 듯한 방종의 상태로 동독인들을 떠민다.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이끈 장벽의 붕괴는 일종의 ‘폭발’로 관찰되며,⁷³⁾ 완전한 빛의 순간을 만든 이 폭발은 동독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더욱 더 역동적으로 혼돈의 상황을 이끈다. 더불어 가장 어둡던 동독 사회의 일면 또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동독의 민권운동가들이 모여서 혁명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던 그 시각, 갑자기 라디오에서 장벽이 열렸다는 뉴스가 나온다. 모두가 숨죽여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습의 사진 속 그들의 눈에서는 놀라움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거대한 감동에 압도되어 환호성도 지르지 못한 채 엄숙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엄숙한 분위기는 진짜 바라던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겪게 되는 표현 못할 실제의 감동과 경이로움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라디오 드라마 Hörspiel(TB 97)”라고 치부하

72) 한운석: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제54집, 2009, 237쪽.

73) Håvard Egeland: 앞의 논문, 68쪽.

면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토록 바라던 변화였지만 실제로 벌어졌을 때 단번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회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레나의 큰오빠는 혼돈에 휩싸인 사람들을 뒤에 두고 즉각 브란덴부르크 문을 향하기 시작한다. 역사적인 날 기쁨과 환희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으나 그날 밤 그가 찍은 사진은 흔들린 사진 가득 환희에 찬 얼굴들과 기쁨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하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그의 목덜미를 껴안고 “미치겠다!” 하고 외쳤다. 그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그런데 그도 어딘가 이상해졌다.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레나의 큰오빠는 동화 나라 속에서 웃는 방랑자가 되어 떠돌아 다녔다.⁷⁴⁾

벽찬 마음을 차마 말로 표현해 내지 못해 “미치겠다 Wahnsinn!(TB 100)”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레나의 큰오빠 역시 자신을 숨기는 것에 익숙했던 그의 이전 모습과 달리 내면의 변화를 느끼며 기쁨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빛의 순간이 인물의 본래 성격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한편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회의 변화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비밀로 감춰오던 인물의 타락한 생활 모습, 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한 여자의 비밀스런 사생활마저도 서슴없이 공개하게 만든다. 베레나 랑게는 동독 사회의 굳건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본인은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이며 남편은 능력 있는 검사이다. 그런 그녀는 남편 몰래 연하의 남성 카를리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장벽이 열렸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있던 카를리와 함께 벽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베레나 랑게는 언어의 비상사태에 놓인 채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기

74) TB: 99-100쪽. ☞

빠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하는 시간보다 숨을 쉬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의 말을 정리하면, 둘은 방금 집에 돌아와서 카를리는 바로 화장실에 가고 그녀는 레코드를 들으려고 했다. 카를리의 음향기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실수로 라디오를 켰다. 카를리가 와서 레코드판을 올려놓아주기를 기다리는데 라디오에서 내내 흥분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들은 것을 이해한 순간 그녀는 “카를리, 장벽이 무너졌어!” 하고 소리쳤다. [...]

“우리 카티야한테 증거를 갖다 줘야지! 내일 아침에 내가 어제 서독에 갔다 왔다고 하면, 나보고 미쳤냐며 믿지 않을 거야!”⁷⁵⁾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처음 본 레나의 큰오빠에게 이 말 저 말을 뒤죽박죽으로 쏟아내고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면서 서독에 갔다 온 증거를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은 억압받으며 살아온 삶 속에서 타락한 동독인의 생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빛의 순간에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반면, 변화의 불씨를 감추고자 노력했던 인물들에게는 또 다른 어둠이자 혼란이 시작된다. 마티아스 랑게는 “과도에 부딪히는 바위 Fels in der Brandung(TB 100)”처럼 고난에 처한 모습이다. 동독 사람들이 저마다 장벽이 열렸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도중에 모두가 다 같은 감정을 겪는 것은 아님을 마티아스 랑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변화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건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검사라는 신분에서 더욱 더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티아스 랑게는 축하하지 않았다. “이봐요, 기뻐해야죠!” 하고 거의 1분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 벌써 세 번이나 격려의 입맞춤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의 *뺨에다 ‘쪽’* 하는 소리가 나도록 뽀뽀도 받았다. 이봐요, 기뻐해야죠! 그는 기쁘지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⁷⁶⁾

75) TB: 98-99쪽. ☞

76) TB: 100쪽. ☞

그는 기쁨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하는 세태를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 자기의 신세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 방향 설정을 두고 판단을 내리지 못해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이내 “이제 좀 기뻐해도 된다 sei doch froh!(TB 101)”라고 말하며 그 동안 검사로서 가졌던 책임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기 통제의 굴레를 조금 헐겁게 변화시키려는 미약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동독 사회에 빛이 드리우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발렌틴 아이히의 인생은 그 자체가 동독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동독 사회에서 “줄을 잡아당기며 er zog die Strippen(TB 214)” 사람들을 조종하는 장막 뒤 권력자로 통하는 발렌틴 아이히는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부를 쌓았으나, 동독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가 저지른 사회악이 폭로되어 쫓기는 상황에 처한다. 실제로 동독에 여행 온 서독인들은 서독 화폐를 무조건 동독 마르크로 의무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러한 제도들이 발렌틴 아이히가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근간으로 등장한다. 발렌틴 아이히는 의무 환전을 하게 하고, 주유소 인터탱크에서 서독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따로 설치된 주유대에서 서독 화폐로 지불하게 하였으며, 서독 화폐만이 유일한 지불수단이 되는 인터숍 체인점을 만들어 막대한 서독 화폐를 축적하였다. 또한 서독 돈으로 항공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인터플룩, 서독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인터호텔을 보유하고, 서독의 국가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공략하여 여러 개의 회사 설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쌓는 지략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동독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적 감각으로 자신이 시대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곧바로 도피를 감행하지만 쉽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두려움에 떨게 된다. 교도소에 자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독의 경제를 지배하던 막후 인물은 동독의 어둠과 같은 존재인 슈타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점차 쇠약한 모습을 보인다. 슈타지의 일원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던 인물이 이제는 역으로 불안에 떠는 모습은 그동안 슈타지의 감시 하에 고통받아온 동독인들에게 쾌감을 선사할 만큼 희극적이다.

폭발과도 같은 빛의 순간 이후 발렌틴 아이히가 동독에서 저지른 검은 비리와 동독 사회의 어두운 일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장벽 붕괴 후에도 계속해서 혁명을 외치는 동독 시민 모임이 폭동을 일으키던 중 한 건물의 창고에서 ‘무기’가 발견되자 그동안 국가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독인들이 유지하고 있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 무너지게 된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전쟁의 도구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막후 인물을 통해 무기 수출까지도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국가가 저질러온 어두운 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지목된 발렌틴 아이히는 그동안 어떠한 책임추궁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의해 보호되거나 묵인되었던 비리와 범죄사실까지 날날이 파헤쳐지며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된다.

월요일에 그는 다시 내무부에 전화를 했다. 그 사이에 그의 도주는 거의 국가의 위기가 되었고, 그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발렌틴 아이히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

그는 내무부 장관에게 베를린으로 와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차나 비행기도 타지 않으려고 했다. 내무부 장관은 발렌틴 아이히의 신경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 “나도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타면 그 기차를 세우고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가로막고 심지어 격추기를 동원해서 비행기까지도 착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슈타지라고 그는 확신했다.⁷⁷⁾

슈타지의 일원이기도 했던 발렌틴 아이히는 예전의 당당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진 모습으로 서독 내무부장

77) TB: 226-227쪽. ☞

관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다. 이렇듯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완전한 형체를 갖게 된 후 폭발하듯 빛의 순간을 맞이한 동독 사회 내에서 역설적이게도 어두운 동독사회의 일면이 더 명확히 드러남을 작가는 대립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3.4 ‘빛’과 ‘어둠’의 혼재: 실망하는 동독인과 불평하는 서독인

빛은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있을 때 그 세기가 커지며 흩어지는 순간 약화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동독인들의 모습 자체가 ‘빛’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한 빛을 냈던 평화 시위 이후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서독에서의 각기 다른 경험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은 바로 ‘빛의 해산’을 상징한다.

장벽이 열린 뒤 서베를린으로 함께 온 레나와 친구들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지하철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단순한 일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앞으로 동독인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단일 체제로 운영되던 동독 사회가 어떤 식으로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지에 대해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독에서 건너온 이들에게 서독 정부가 주는 “환영금 1백마르크 Begrüßungsgeld, 100DM(TB 118)”는 마치 동독인들이 품어오던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빛’을 물질화하여 수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낯선 서독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 각각 흩어진 레나와 친구들은 이 환영금을 가지고서 하루 동안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기대와 다른 서독의 현실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릭비틀 멤버들은 서독의 걸쳐 Kultur라고 지칭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무미건조한 상업적인 맛에 “아삭하는 소리도 안 난다 Die schnurpst nicht mal(TB

119)”며 크게 실망한다. 한편 레나는 화려한 색감으로 유혹하는 듯한 음식 광고 사진을 보고 군침을 삼키지만 이내 동물용 음식 광고였다는 사실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레나는 윤기 나는 소스가 뿌려진 채 풍부한 육즙을 보이는 쇠고기 굴라슈 사진이 아주 잘 찍힌 광고판을 봤다. 굴라슈의 옆에는 방금 구워진, 가운데 속은 장밋빛을 띄고 고깃결이 선명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한 점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입 속에 침이 고였지만, 그녀는 강력하게 이를 막았다. 그 광고는 개 먹이를 위한 광고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레나는 모든 광고가 싫어졌다. 그녀는 개먹이 광고가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판단했다.⁷⁸⁾

레나는 영화 속에서 보고 기대한 모습을 현실에서 그대로 보기를 바랐지만 현실의 다른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서독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당 성향의 동독 TV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되어 짜증을 내는 레나의 모습에서 미디어를 통해 학습 받고 세뇌 당한 동독인들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엿보인다. 또한 레나는 한 시간이나 걸려서 시청을 찾아가고 환영금을 수령하기 위해 줄을 서는 자신의 모습에서 단지 동독에서 왔다는 이유로 줄을 서서 돈을 탈 수 있는 사실에 불쌍한 처지가 된 듯하여 맥 빠진 느낌을 받는다.

레나는 정치 없이 배회했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오늘 같은 행복한 날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오늘 전혀 행복하게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었다.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국경에서 이상하게 헤어진 것, 혼란스럽고 목표 없이 서독을 헤매고 다닌 것, 로저와의 만남, 빌머스도르프의 노래하는 미망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정치 없이 돌던 것 등이 다 그랬다. 그녀의 계획은 아무런 반항 없이 지속되었다. 그녀는 카를마르크스 시에서의 경험을 더욱 강렬하게 떠올렸다.⁷⁹⁾

78) TB: 123쪽. ☞

79) TB: 124-125쪽. ☞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순간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레나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동독에서의 기억이다. 이상과 다른 현실에 대한 실망은 최악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순간을 아름다웠던 시절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레나가 서독에서의 첫 경험에 실망하고 있을 때, 레나의 큰오빠 역시 기대와 다른 하루를 보내며 가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에 실패한다. 여러 개의 삶이 혼재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독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많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려 했지만, 실상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했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필요 없는 사진들을 찍었다. 나중에 그는 레나를 만났다. 엄청난 우연이었다. 레나가 곁에 있자 그는 좋은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다.⁸⁰⁾

“파라다이스 Schlaraffenland(TB 122)”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었음에도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쓸데없는 사진들을 찍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님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레나를 마주치면서 사진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레나는 ‘동독 그 자체’이며, 레나가 찍힌 사진은 ‘동독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임을 알게 한다.

짧은 하루 동안 레나는 자기가 상상해왔던 모습과 다른 현실의 차가움을 그대로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꿈꾸던 ‘끝’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는지 답답함을 느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꿈을 꾸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한 시기이며,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저 그런 현실에 불과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레나는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하며 오히려 동독에서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며 빛을 만들어내던 그때 그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80) TB: 122쪽. ☞

‘아삭 하는 소리도 안 났어’라고 한 명이 말했고, 다음 사람은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인거야’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열대 정글에서 자란 게 가장 예뻐’라고, 레나는 ‘개 먹이는 지나쳤어’라고 말했으며, 레나의 큰오빠는 ‘나는 모든 것을 찍었어.’ 라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와일드 빌리였다. 그는 몹시 취해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 와일드 빌리는 “아일랜드, 우리는 아일랜드가 돼야 해!”하고 외쳤다.⁸¹⁾

동독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모인 레나와 친구들은 동독에서 건너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 각기 다른 서독에서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짧은 하루 만에 한 눈에 보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자 당황스러워 하며 혼란을 겪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에 따라 서독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후에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적응하며 형성하게 되는 가치관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서로 다른 경험을 시작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때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암시한다. 또한 와일드 빌리가 내뱉는 “우리는 아일랜드가 돼야 한다! Wir müssen Irrland werden!(TB 127)”라는 외침은 독일어로 아일랜드 Irland가 ‘미친 나라’를 뜻하는 ‘Irrland’와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의 기법이 사용된 것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동독과 서독, 즉 독일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미친 듯한 혼란 속으로 향할 것임을 예고한다.

장벽의 붕괴라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한 이후 서독을 경험하게 된 동독인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동안 서독인들도 동독인들을 반기며 환영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나뉜다. 이는 또 다른 독일 사회의 혼란인 “전환기 이후의 문제 Nach-Wende-Probleme”⁸²⁾들을 촉발한다. 서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81) TB: 127쪽. ☞

82) 조윤주: 「Die deutsche Einheit und die Bewältigung der Vergangenheit in den Werken Thomas Brussigs」.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5, 45쪽.

되자 동독 사람들은 신세계를 만난 것 마냥 서독 사회를 헤집고 다닌다. 그러면서 동독인과 서독인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레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된다. 서독의 백화점을 가득 채운形形色색의 물질에 매혹된 동독 사람들로 인해 테스트 제품도 내놓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서독을 거닐고 있는 동독인들의 모습은 마치 아직도 혁명을 외칠 듯 “얼룩덜룩하게 탈색된 청바지 marmorierte Jeans(TB 294)” 차림이다. 동독인들은 서로를 잃어버릴까봐 가족 단위로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심지어 섹스 숅에서도 가족 전체가 뭉쳐 있는 희극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동독인들이 가족과 공동체 중심으로 뭉치는 특성이 있을 뿐 더러 처음 온 서독 사회에 대한 낯센에서 발생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를 보는 서독인 베르너 슈니텔의 눈에는 어이없고 무식한 행동이라고 보일 뿐이다.

그는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야! 저기 봐, 저기!” 하며 터져 나오는 갑탄과 놀라움의 소리를 들었다. 가게의 진열장이든 미끈하게 잘 빠진 자동차이든 또는 재치 있는 광고용 간판이든, 이러한 탄성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익숙한 세계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 놀라운 것인지 느끼게 되었다.⁸³⁾

베르너 슈니텔이 동독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뿐이다. 사기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화장실 관리자인 체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여 지는 그의 태도는 전환기 독일 사회에서 대다수 서독인들이 갖는 현실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화장실 입구에서 30페니히씩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베르너 슈니텔에게 나이 든 노부인은 “독일이 다시 하나가 된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An so nem Tag, wo Deutschland gerade wieder eins geworden ist, da kann man doch mal n Auge zudrücken(TB 296)”고 따지면서 같은 독일인으로서의 동질감에 의미부

83) TB: 294-295쪽. ☞

여를 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Wir sind von drüben(TB 296)”이라는 표현을 통해 동독인 스스로 경제적 무능력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베르너 슈니델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Wir müssen auch leben(TB 296)”는 날카로운 말로 거절하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독일 통일 시기에 동독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느라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겪던 서독 사회를 연상시킨다. 이 에피소드에서 ‘저쪽’과 ‘이쪽’으로 동독인과 서독인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고 또 서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이후 독일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독 간의 대립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동독인들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역할을 서독인보다 높게 설정하여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⁸⁴⁾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서도 서독의 경제력에 기대어 공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동독인의 의존적인 모습이 팔라스트 호텔 내 인터숍에서도 발견된다. 유디트 슈포르츠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인터숍은 장벽 붕괴 이전부터 서독 마르크로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장벽이 개방되자 인터숍에 찾아와 동독 마르크 사용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는 동독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ir sind das Volk!(TB 234)”를 외치는 손님의 모습은 그저 지난 날 동독 사회에서 억눌려 살아온 감정의 분출을 상징한다. 이런 손님의 모습은 유디트 슈포르츠의 눈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혁명 구호를 술책 삼아 저항하고 있는, 마치 봉기를 일으키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일 뿐 같은 동독인으로서 그 손님을 이해하거나 그의 주장에 동요하는 모습은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봉기를 일으키려고 의도했다. 인터숍을 약탈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꿈꿔온 환상에 속하는 것이었고

84) 전태국: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10쪽.

특히 요새 들어 사람들이 간이 커지면서, 누구나 체제 반항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 이제 그들은 인터숍에서도 혼란과 질서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다.⁸⁵⁾

한편 인터숍에서 논쟁이 벌어진 모습을 지켜보던 레오 라트케는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이 그 손님에게 자기가 담배를 사고 남은 6마르크 50을 쥐어 주는데 이는 동독인의 행동을 관찰하고자 한 조롱 섞인 태도일 뿐이다. 레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뭐라도 살 수 있을 지 복잡하게 고민하다 이내 모자란 20센트를 더 구걸하고자 애처로운 시선을 던지는 동독 손님의 행동은 경제적 능력도, 이성적인 사고도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는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이 그저 아이히와 그의 장사를 비난하면서 떠나버리는 동독인의 모습에서 서독의 경제력에 아무 의식 없이 의존하는 동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바라면서 이득을 챙기려는 동독인과 계속되는 경제적 지원에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던 서독인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85) TB: 235쪽. ☞

4. 인물의 정체성 변화 양상

장벽이 붕괴된 후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동독과 서독을 둘러싼 독일 사회 전체가 혼란기에 접어든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찬 미래이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개인들 간의 갈등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들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현실에 방황하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김누리는 동독이 흡수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루며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갈등 국면이 심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⁸⁶⁾ ‘정체성’이란 “사회적 현실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⁸⁷⁾이다.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이란 한 사람이 살아온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학교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 모습이자 자기 내면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체성은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전환기 사회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인물이 겪는 행동 방식 및 태도의 변화나 가치관의 생성과 변화 등을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통틀어 나타내도록 하며 이것이 어떤 혼란을 겪으며 변화해 가는지를 고찰해본다.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혼란과 이에 대한 반응 및 극복을 보편적 정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상상을 통한 간접 경험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86)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 2008, 212-213쪽.

87) 조광민: 「분단 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59쪽.

4.1 사회변화가 야기한 인물의 정체성 손상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인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에 반대하며 기존의 사회체제를 지키는 편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의적인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자신의 위치나 사회적 임무 등에 의해 행동하기도 한다. 헬프리트 슈라이어 박사의 아들인 마르코는 19살에 군대에 징집되는 동독 사회의 법규에 따라 기동대에서 시위대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르코는 군대의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시위 진압 현장에 나가 있지만 그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 신랄한 비난과 질책을 쏟아내는 레나를 만나게 된 후부터 군대 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그날부터 자기 스스로가 “손상되었다 *beschädigt sein*(TB 341)”고 생각한다.

“[...]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그들을 존경했어. 한심하지만 나는 그들과 나를 ‘동일시’ 하기도 했고, 유감스럽게도 한도를 넘었지. 나는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의 인간이었어. 출전해서 의무를 완수하는 순종적인 전경이었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나는 참여했을 거야. 하지만 잘못된 편에 있었겠지.” 마르코는 입 안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 열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회상했다. “우리는 역을 폐쇄해야 했어. 그리고 그때 내 앞에 선 내 나이 또래의 여자 한명이 나를 완전히 호되게 나무라는 거야. 그녀는 국가와 체제에 대해 분노했고 그녀의 화는 정당한 것이었어. 10분쯤 그 애가 나를 내리쳤을 거야. 나에게 명예가 있는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되는지, 이 유치원에 질러버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려고 나서 밤에 편히 잠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여자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나는 그녀를 미치광이를 무시할 때처럼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녀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⁸⁸⁾

마르코는 자신도 모르게 군대 내에서 세뇌 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

88) TB: 343쪽. ☞

을 불현 듯 깨닫게 된다. 자기 스스로 동독 사회의 체제에 순응하여 동독 사회를 지키기 위해 체제에 반발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물리쳐야겠다는 다짐과 의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나의 말은 더욱 더 마르코의 머리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것처럼 울림을 주게 된다. 그러나 마르코가 받은 상처와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와 관계없이 시위 진압 현장의 선두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특별 승급하게 된 그는 군대 내에서 동독 체제에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며 더욱 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한편 아들 마르코와 마찬가지로 헬프리트 슈라이터 박사 또한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키다가 끝내는 자기가 손상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카롤라와 함께 동독의 집으로 눌러온 남자친구 티로는 이른 아침 사방이 눈으로 덮인 차 안에서 헬프리트와 대화를 나눈다. 자신의 딸을 서독으로 데려간 티로를 납치범으로까지 표현했던 헬프리트가 마치 오래된 옛일을 회고하듯이 티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그동안의 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지쳐왔는지를 알게 한다.

“[...] 그리고 나서 사건이 터졌지. 마르코는 기동 경찰대에 있었어. 회사에서는 여기저기서 정신없는 신 포럼, 월요데모, 파업이니... 그만두지. 아무도 내 딸이 도망을 갔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었어. 사장이자 당의 핵심 인사인 슈라이터, 체제의 일부로 제거 되어야만 하는 인물인 거지. 그런데 아무도 딸이 사라졌을 때 아버지로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 [...]

“그때, 그날 밤, 발라톤에서 뭔가가 깨져버렸다네. 그 이후로는 내가 자동판매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가를 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마당에서 소일이나 하면 충분할 텐데. 계절을 느끼면서 말이야. 저 눈을 보면...”⁸⁹⁾

티로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카롤라가 떠나고 난 후에 느낀 아버

89) TB: 340쪽. ☞

지로서의 암담한 심정, 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작센링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태도 변화를 결심하던 당시의 심정까지 변혁기에 헬프리트가 겪은 모든 일과 그 속에서 일어난 내면의 변화까지 모두 담겨져 있다. 온통 눈으로 뒤덮여 차갑고 서늘한 외부의 공간적 배경과 대조적으로 아늑한 차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헬프리트 슈라이터의 모습은 마치 자신을 뜨겁게 불태운 후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모습이며 그의 태도에서 그동안 사회 변화를 경험하며 누적된 피로와 손상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작센링 공장에 찾아와 혁신을 외치며 트라반트의 충돌 실험을 하게 한 슈니텔의 행동도 헬프리트 슈라이터에게 손상된 자동차들만큼이나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다. 서독을 대표하는 기업 ‘폭스바겐 Volkswagen’ 사장의 아들로 가장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특별전권대사 Sonderbevollmächtigter(TB 297)”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베르너 슈니텔은 작센링 공장에 방문하여 헬프리트 슈라이터를 만난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면서 헬프리트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접 그들의 차를 주행해보도록 하고 “창조적 파괴 die schöpferische Zerstörung(TB 269)”라는 명목으로 트라반트 9대를 모두 손상시킨다. 차들이 모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외치는 알비노 소년의 광기어린 모습은 전환기 시대의 ‘미친’ 독일의 모습과도 같다. 그의 요구가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요구임을 알면서도 작센링 회사의 임원진들은 서독의 거대한 경제기업이라는 그의 배경에 압도당한 채 베르너 슈니텔의 요구에 따르게 된다. 서독이 가진 경제적 힘에 기대는 것만이 변화하는 동독 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라반트 자동차가 부서지는 충돌 실험이 끝난 후 임원진 모두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트라반트 한 대당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4년이었고, 서로 뒤섞여 달려오는 트라비들이 충돌하는 소리는 슈라이터 박사의 눈에 14년 간격으로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를 망

가뜨리려 몰다니, 이런 모독이 있을 수가! [...] 그것은 죄악이고 참혹한 것이며 모독 행위라고 그는 생각했다.⁹⁰⁾

동독인들에게 있어 높은 가치를 가지며 동독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자동차들이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그 가치도 함께 부서짐을 의미하며, 동독인으로서 갖는 정체성 또한 부서지는 듯하다. 트라반트 자동차는 동독 경제의 자부심이자 지나간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물건이기에 이것이 한 순간에 부서지는 모습은 동독 사람들의 가치와 기억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서독 사람의 태도를 느끼게 하며 동독인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한편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자기 정체성에 손상을 입은 인물도 등장한다. 베레나 랑게의 내연남 카를리는 50마르크를 받고 얼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장벽이 붕괴된 이후 ‘아동 성추행범’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얼굴로 독일 곳곳에 게시된다. 이에 카를리는 에이전트로 달려가 항의하지만, 곧바로 “동독에서 왔냐? Sie sind ausm Osten, nicht wahr?(TB 464)”는 질문에 바보가 된 느낌을 받는다. 자본주의 그 자체인 에이전트 사장에게 앞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볼 것 Immer gut durchlesen, bevor Sie etwas unterschreiben,(TB 464)”이라는 충고와 그것이 “여기 방식 So läuft das bei uns.(TB 464)”, 즉 서독의 방식이라는 서늘한 말과 함께, 그의 무지함만 조롱당한다. 이는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경험도, 면역력도 없던 동독인이 겪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을 대표하는 것으로 계약서나 조항이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동독인으로서의 갑작스럽게 변화된 외부에 의해 자기 정체성이 왜곡되어 버린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왜곡된 정체성은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인물의 모습까지 변질시키고 만다.

그녀는 ‘어머니, 나 저 사람 아는데!’ 그리고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을

90) TB: 272-273쪽. ☞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떠올랐고,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 그때 그녀는 자기가 관계하던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착한 이웃집 아저씨’라고 내걸려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 카를리는 정말 어린이 성폭력 범일지도 모른다.⁹¹⁾

역에서 우연히 카를리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보게 된 베레나 랑게는 혼란에 빠진다. 그녀는 카를리를 두고 “아이 같은 눈 Kinderaugen(TB 277)”을 가졌다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포스터를 본 직후부터 제대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혼란을 느끼며 이내 포스터에 적힌 그대로 실제 어린이 성폭력범일 지도 모른다고 단정 짓는다. 이런 그녀의 태도를 통하여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부여된 외부의 ‘틀’에 의해 왜곡될 수도, 왜곡된 채로 고착화되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4.2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유지 혹은 상실

장벽이 붕괴된 후 동독인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사고방식과 추구하는 가치관 또한 달라진다. 특히 서독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경험한 동독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서독처럼 발달된 물질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독화 되려는 사람들과, 서독의 물질주의를 경계하면서 동독 스스로가 이상적인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 동독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 그 중심에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향하는 사회 체제의 모습과 독일 통일의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 TB: 466쪽. ☞

동독인 간에 형성된 가치관의 차이는 같은 상황을 두고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와 우선시하는 지향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장벽이 열리고 동독 사람들이 처음 서베를린으로 향했을 때, 함께 갔던 레나와 레나의 친구들은 제각기 하고 싶은 것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서독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때를 시작으로 서독과의 왕래가 자유롭게 된 동독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차 저마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카를 마르크스 동상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화를 꿈꾸었던 그 때와는 달리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레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혁명을 말하기 위한 상징으로써 스케이트를 타고 당당하게 임금 협상을 하러 간다. 뤼디거 위르겐스 장관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회의실로 향한 그녀는 현실적으로 8~10%의 임금 인상을 얻어내겠다는 다짐과 달리 30% 인상을 약속받는다. 당시 동독은 하루아침에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뤼디거 위르겐스 장관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면서 당분간만 임시직을 무사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나온 레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약속이며, 장관이 자신들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포퓰리즘을 목적으로 마구 던진 제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허무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아이 같은 순진하고 철없는 행동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여하튼 더 이상 롤러스케이트를 탈 나이는 아닌 것 같아.” 잠시 후 레나가 말했다. “이제 롤러스케이트는 땅속에 묻어야겠어.”⁹²⁾

레나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혁명의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레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롤러스케

92) TB: 178쪽. ☞

이트를 버린다. 롤러스케이트를 버리는 레나의 행위와 레나의 큰오빠가 찍은 사진 속 한쪽만 남겨져 짝짝이가 되어버린 롤러스케이트는 혁명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느낌과 함께 실망으로 가득 찬 전환기 독일 사회에서 레나가 느끼는 불행함을 상징한다.

한편 레나의 큰오빠는 서독 출신의 기자인 레오 라트케와 함께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의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일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자본이 주는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깨닫게 된 모습이다. 그러나 레나는 여전히 혁명을 꿈꾸던 1989년의 여름 때처럼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시키면 바라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모습이며 이에 레나의 큰오빠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언제나 레나를 자랑스러워했고 찬미했던 레나의 큰오빠는 그녀들의 등장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모든 연출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레나는 노래를 부르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으로 다 된다고 다 된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즐거운 혁명이 끝이 난 그 순간을 놓쳐 버렸다. 혁명은 끝났다. 정부가 사퇴하고 권력이 휴직 상태가 된 순간에 혁명은 끝이 났던 것이다. 누구나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레나, 네가 그 권력에 개입하고 싶다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의회로 나가라, 레나의 큰오빠는 생각했다.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선거에서의 표시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⁹³⁾

레나의 큰오빠가 생각했을 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수단은 선거 용지의 표시뿐이며, 그래서 그는 혁명을 위해서 예전처럼 노래와 롤러스케이트로 세상을 움직여보겠다는 순진한 생각보다 ‘권력’을 가져야 함을 레나에게 말해줄 필요성을 느낀다.

93) TB: 176-177쪽. ☞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동독인 간의 갈등은 최초로 동독에서 시행된 자유선거의 과정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초기 전환기에는 동독인들이 하나 되어 동독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동독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독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사람들과, 서독의 자본주의에 기대어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하루 빨리 서독의 자본을 향유하면서 이익을 얻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리길 싶어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동독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그만 Keine Experimente!(TB 398)”을 외치며 철저히 서독의 도움에 의한 경제적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쪽은 여전히 혁명운동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혁명시기 여신으로 인정받던 레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서독 사람들이 마시는, 경제의 상징물이라고 할 만한 콜라 캔을 가득 쌓아 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면서 유세를 하기도 한다.

레나는 쌀쌀한 3월의 오전에 콜라로 유인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콜라는 날개 돌친 듯 사라졌다. [...]

많은 이들이 콜라 캔을 가져가려고 했고, 후보자는 그들을 부추겼다. “내일 연합정당의 승리를 기념하며 마시세요!”⁹⁴⁾

동독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끝을 기대했던 것만큼 자기가 편을 들고 있는 당에 호응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레나의 기대와 달리, 눈앞에 놓인 콜라 캔에 관심을 보이고 콜라 캔이 터지는 그 소리에 현혹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 서독의 향기에 취한 것처럼 의식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레나는 크게 실망한다.

그녀는 서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같은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해 보였다. 시위행진을 한 지, 역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지 6개월도 되지 않

94) TB: 400쪽. ☞

았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들은 초보 단계였고 건디기 어려웠다. 이런 모든 혁명이 선거에서 코카콜라 캔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배신으로 보였다.⁹⁵⁾

결국 선거의 결과 서독 사회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자 정체성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끝까지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동독이 사라져 버렸다는 위기감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도 상실한 듯한 무기력한 태도를 갖게 된다.

4.3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적응 실패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자신의 뿌리와 존재의의를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의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주체는 어디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고 김용민은 말한다.⁹⁶⁾ 하이디나 자비네 부세가 외부의 도움을 통해 완전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미성숙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조광민의 주장에 따르면 “결핍”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역사적 결핍으로 인해 개인은 비정상적이거나 불완전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통일 이후 새롭게 정체성을 획득했음에도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적응에 실패하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⁹⁷⁾

하이디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몸속에 있는 진짜 정체성은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으로 얼룩진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삶의 풍파를 겪는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 때쯤 동독 내에서 성전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 심리치료와

95) TB: 401쪽. ☞

96) 참조. 김용민: 앞의 논문, 145쪽.

97) 참조. 조광민: 앞의 논문, 70쪽.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하여 서서히 여성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나 동독 사회에 변진 변화의 흐름은 하이디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안겨준다. 하이디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전문의가 동독을 탈출해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하이디는 치료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었고, 다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간 단계의 괴물 같은 형상이 된 그녀는 다시 잃어버린 성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며 방황하게 된다.

조광민은 마틴 발저 Martin Walser의 작품 『유년시절의 정체성 Die Verteidigung der Kindheit』을 연구하면서 작중 인물인 알프레트의 비정상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집단적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분단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단의 문제, 즉 분단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⁸⁾ 이는 하이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 정체성의 혼란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작품 속 인물인 하이디는 동독 사회에서 태어나 억압받으며 살아온 ‘동독인’이자 자유를 갈망하며 서독인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동독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동독인들의 처지를 표상한다. 외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도움이 사라졌을 때 아직 완전히 적응하고 성숙하지 못한 개인은 또 다시 방황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텍수염이 난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뤼디거 위르겐즈 박사가 지난 몇 주간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애처로운 말이었다.⁹⁹⁾

자유를 얻지 못해 슬퍼하던 하이디는 결국 레오와의 인터뷰 후 기사가 나가게 되면서 의사들의 도움으로 성전환술을 끝마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이디에게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주진 못했다. 그녀는 원

98) 참조. 조광민: 앞의 논문, 74쪽.

99) TB: 175쪽. ☞

하던 대로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지만 억눌려왔던 지난 시절 남성을 성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왔고, 이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 변화된 몸을 이용하여 매춘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없으며 몸과 정신이 분리된 정체성의 상실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변화를 거치지만 내적인 적응에 실패하여 고통 받는 또 다른 인물로 시각 장애인이던 자비네 부세가 있다. 이 여성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집 안에 거울을 두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녀는 레오 라트케와 의사인 그의 형의 도움을 받아 시각을 되살릴 수 있는 수술을 받는다. 수술 후 세상을 보는 것은 자비네 부세에게 일종의 “대탐험여행 eine große Entdeckungsreise(TB 530)”과도 같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자비네 부세는 수치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수술도 잘 되어 스스로 볼 수 있는 정상 시각을 갖게 되었으나 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적응 실패의 원인에 대해 그동안 자기 스스로 시각 없이도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처럼 잘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사물을 주시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립 미술관에 온 시각장애인이라니. 그 사람은 시각에 약간 이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맹인이었다. 그 맹인 여자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요금으로 입장료의 절반 값만 지불했고 외무부의 특별 요청으로 미술관 관리자인 베레나 랑게가 안내를 맡게 된 스칸디나비아 국회의원들 그룹에 끼어들었다. 그룹에 낀 맹인 여자는 아돌프 멘첼,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막스 리버만의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설명을 정정하고 가르치려고까지 했다. 황당한 일이었다.¹⁰⁰⁾

100) TB: 50-51쪽. ☞

자비네 부세는 수술 이전에도 그림 전시를 보러 가고, 미술관 큐레이터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맹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동독 사회에서 눈 감은 채로 살고 있는 동독인들을 상징하는 듯하다. 혹은 서독인이 봤을 때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눈 뜨고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의 동독인 같기도 하다.

자비네 부세의 이야기는 한 마디로 ‘행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맹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31년이 지난 후 시력을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녀를 위해 축복해줄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해피엔드가 아닌 비극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그녀도 해피엔드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맹인이고 싶어 했다. 지금 그녀는 맹인이지도 않고 정상인도 아니다. 본다는 것은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그녀는 더 이상 완전한 맹인도 아니다. 그녀는 그 전보다 더 볼 수 없게 되었다.¹⁰¹⁾

그녀에게 뇌수술을 통한 시각의 회복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 사회가 동독 사회에 베푼 경제적 원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에도 결국 제대로 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지고 있던 다른 감각 기능마저 퇴보하는 자비네 부세의 모습에서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도움과 더불어 개인의 ‘의지’가 중요함을 알게 한다. 또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방향을 상실한 채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일과 함께 하루아침에 동독인들은 깊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해야 했

101) TB: 537쪽. ☞

다.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법과 규율, 가치와 규범들, 상징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고 서독에서 온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다. 병합에 의한 통일 방식에 따라 동독인들은 서독의 규범과 생각, 해석모델과 심성에 빨리 순응해야 했다. 동독인들은 적어도 수년간 ‘전환기의 스트레스 Wende-Stress’로 고통 받았던 것이다.¹⁰²⁾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하이디나 자비네 부세가 외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여 대응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여 진다. 더불어 끝까지 적응하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됐을 경우 본연의 정체성까지 상실한 채 부유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황하는 동독인들은 통일 독일 사회의 내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써 설명될 수 있다.

4.4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추구를 위한 정체성 변화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동독의 호텔에서 최고 지배인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목이 없는 뚱뚱한 몸에 알코올 중독자 같은 빨간 코, 거무스레하고 주름진 눈꺼풀을 가진 그는 외양 묘사에서부터 정형화된 인물의 성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항상 숨을 헐떡거리며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그를 보며 호텔 직원들은 모두 최고급 호텔의 지배인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뒤에서 비아냥거린다. 전혀 그럴만한 위인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호텔 최고 지배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충실한 당성을 가진 인물로 당에 충성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생하며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내바치는 인물의 습성 덕분이다.

장벽 붕괴 전 알프레트 분추바이트가 팔라스트 호텔에서 일하면서 충성을 바친 인물은 발렌틴 아이히로 둘의 관계를 정의할 만한 확실한 용어가 존재하진 않으나, 분추바이트는 그를 ‘친구’라고 칭하고 싶어 한다. 권력이 있어 보이는 자와 친구라는 긴밀한 사이가 되어 그 사회적 연결

102) 한운석: 앞의 논문, 257쪽.

망에 기대어 보고 싶은 심리인 것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친밀함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당 소속이며 체급도 같은, 같은 세대의 인물들이었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마치 팔라스트 호텔이 그의 집이고 호텔의 자산이 그의 소유물이며 직원들이 그의 하인들인 것처럼 다루며 최고 지위에 있어 보이는, 외국 환 전문가 발렌틴을 대접했다.¹⁰³⁾

그는 대강의 짐작으로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보인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서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발렌틴 아이히와 상호 유대감을 쌓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감자전’ 이라고 생각한 그는 발렌틴 아이히가 올 때마다 직접 주방에 들어가 감자전을 부치는 정성을 보인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와 발렌틴 아이히가 최고급 호텔에서 가난하던 시절에 먹던 음식을 먹는 모습은 호텔 최고 지배자와 미스터리한 동독의 초 권력자이면서도 지금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본래 인물의 출신 배경과 그에 따라 형성되어 온 자기 정체성이 쉽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발렌틴 아이히가 던지는 작은 한 마디에도 과한 의미 부여를 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 한다. 이는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에 귀 기울여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기대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인물의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독에 변화가 찾아오고 발렌틴 아이히가 지금껏 해온 어둠 속에서의 부정한 일들이 파헤쳐지자 발렌틴 아이히는 대중들에게 쫓겨 서독으로 도망을 간다. 그럼에도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여전히 자기의 친구인 발렌틴 아이히를 옹호하며 현실 정세에 적응하지 못한 우둔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호텔 총 지배인이라는 자기의 지위가 주는 권력에 기생하려는 목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어오던 유디트 슈포르츠가 자신을 무시

103) TB: 47쪽. ☞

하며 거부하고, 호텔 직원들이 서독의 경제력이 있는 재계 인사들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이자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당에 충성을 다하여 총지배인의 자리를 얻어냈던 것처럼 다시 충성을 다하여 복종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줄 새로운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고 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3시 3분 전 거울 앞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유디트 슈포르츠를 다시 침대로 끌고 올 것이다. [...]

그리고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그날 저녁 잠복을 시작했다.¹⁰⁴⁾

한편 팔라스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객실부 부장과 영업부 부장 또한 알프레트 분추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서독인이 새로운 권력을 부여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떠받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발렌틴 아이히가 범죄자가 되어 권력의 날개를 잃은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를 일부러 자극한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가 단지 ‘대외적’으로 호텔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드레스덴 은행과 웨스트 엘비 은행에서 온 손님들 앞에서 강조하듯이 말하며 경쟁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알프레트 분추바이트가 처한 위치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철저히 그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다. 객실부장과 영업부장도 알프레트 분추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옷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당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면서 당에 충성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의 변화를 재빠르게 파악한 이후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당에 충성하던 동독인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곧바로 서독의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이는 자기의 원래 행적을 숨기고 변질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해당한다. 시대의 변화 속에

104) TB: 240쪽. ☞

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의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오던 습성 그대로 동독의 고위층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태도와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랬다. 객실부장과 영업부장은 이미 옆에 쌍쌍으로 은행가 손님들을 끼고 있는 반면에, 그의 친구 발렌틴 아이히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¹⁰⁵⁾

새롭게 의지할 만한 권력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외양상 어린 아이에 불과한 베르너 슈니텔을 자기가 찾던 ‘매니저’라고 판단한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 자신도 처음에 이상한 “애송이 Klaine(TB 243)”라고 생각했음에도 그가 가진 이름과 명함이 상징하는 기업의 배경 때문에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베르너 슈니텔에게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알프레트 분추바이트의 모습은 “즐거운 돼지 das glückliche Schwein(TB 244)”를 연상시킬 만큼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그는 베르너 슈니텔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든 베르너 슈니텔과 자신 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서 베르너 슈니텔에게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모습에서 베르너 슈니텔 뒤에 있는 권력의 실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알프레트 분추바이트의 태도에 베르너 슈니텔 역시 그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더욱 더 과감하게 거짓 행세를 한다.

“아버님께서서는... 무척 바쁘십니다. 전략적인 일 때문이에요. 자동차 산업계는 지금 큰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유럽에 단 여섯 개의 자동차 회사만이 남게 될 겁니다.” 슈니텔이 다소 산만하게 말했다.

알프레트 분추바이트는 그의 말에 “에이, 설마요”하고 대꾸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화를 냈다. 그것은 ‘거대 기업의 집중화’라는 주제와

105) TB: 242쪽. ☞

는 적절히 어울리지 않는 말투였다. 아마 슈니텔의 어려 보이는 얼굴에 흘러 부주의했던 것이다.¹⁰⁶⁾

베르너 슈니텔은 알프레트 분추바이트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더욱 더 과감하게 거짓을 행하며 그를 기만한다. 자신을 폭스바겐의 특별 전권대사라고 소개한 이후로는 분추바이트의 소개를 받아 작센링 공장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거짓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파티를 벌이며 동독의 시장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익을 위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모습은 비단 동독 사람들 개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동독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함에 따라 동독의 대표적인 신문사 또한 자사가 추구하던 기조를 갑자기 바꾸어 시대 변화에 순응하며 그 물결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레나의 큰오빠이며 그의 사진을 이용하여 동독의 변화한 모습을 주간지에 실고자 하지만 레나의 큰오빠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기회주의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알아채고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레나의 큰오빠는 갑작스레 성향을 바꾼 신문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시대 변화상을 담고 있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건 너무 생소해요.” 곤란한 듯 사진부장이 말했다.¹⁰⁷⁾

사진부장이 말하는 ‘우리 독자들’은 그동안 동독 사회에 편승하여 사회 내에서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언론사의 갑작스런 변화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레나의 큰오빠의 예상대로 난감한 기색을 표하는 사진부장의 모습에서 변화에 일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익을 위해 편승하려는 척하는 언론사의 모습

106) TB: 244-245쪽. ☞

107) TB: 96쪽. ☞

을 볼 수 있다. 또한 세대 변화 속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겉모습은 즉각적으로 서독인을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따라가지 못한 채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동독의 모습을 나타낸다.

기젤라 블랑크 역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인물이며 실존 인물인 PDS¹⁰⁸⁾ 출신의 정치인 기지를 모델로 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에 실제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지 또한 변호사 출신의 떠오르는 정치인이었다는 점과 슈타지와 과거에 협력했다는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전환기에 드러난 동독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사리판단을 하여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인물상을 나타낸다.¹⁰⁹⁾

기젤라 블랑크는 미모와 능력을 겸비한 여 변호사로 그녀는 동독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 과거 그녀는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촉망받는 법대생이었으나 재미로 시작한 방송사 일로 인해 로또 당첨 변호를 발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첨은 규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Die Ziehung ist ordnungsgemäß verlaufen(TB 181)”라는 멘트를 하는 여자로서 출연한 이후 순식간에 얼굴만 반반한, 앵무새같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바보 같은 인물로 저평가되면서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방송사와 종신계약이 되어 버린 몸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기젤라 블랑크는 슈타지에 협력하는 대가로 계약도 종료시켜주고 변호사도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비밀스럽게 슈타지가 지시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자기 보호의 수단을 마련하고자 법과 변호사

108)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구 동독의 민주사회당

109) “The Blank character is based on the PDS politician Gregor Gysi. Her nicknames “Gisi” and “Notar” - allusions to allegations that Gysi collaborated with the Stasi under the name *IM Notar* - are obvious indications. Like Gysi, Blank defended East German political dissidents as a lawyer and, in 1990, is a rising politician with a platform of reforming real existing socialism in a democratic context and retaining the GDR’s socialist focus and self-determination.”

Timothy B. Malchow: “Nicht das eine und nicht das andere”: Hybridity, Gender, and (East) German Identity in Thomas Brussig’s *Wie es leuchtet*, in: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Volume 46, Number 2, 2010, 170쪽.

의 직무 규정을 언급하며 그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도 나중에 그 선택이 빌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행동을 변명할 방안까지 고려하는 치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슈타지의 일원이 되었던 기젤라 블랑크는 장벽이 열리고 동독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우려 철두철미하게 행동한다. 가장 먼저 자기에게 슈타지의 업무를 지시해주었던 나이 든 남자를 만나서 자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건네받고 그 종이를 모두 태운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흔적 없이 지웠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평생 비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종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에 남은 불에 탄 흔적은 그녀가 아무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다시 자기 정체성을 숨기거나 변화시켜 사회 속에서 지위를 얻으며 살아가더라도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진작가는 기젤라 블랑크가 소매의 불탄 자국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다. 그 자국은 그녀의 서류를 태운 후에 남은 것이었다. 그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작가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침착하게 행동해, 기젤라 블랑크는 자신을 타일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알 수 있을 리가 없지.¹¹⁰⁾

여기서도 인물의 우연한 만남은 이루어진다. 자기의 비밀을 없앴다고 생각한 기젤라 블랑크는 평소에 전혀 사람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터널에서 걸어 나오는 레나와 레나의 큰오빠를 마주하고 당황한다. 이는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과거의 행적을 없애거나 숨기려고 급급하기보다 드러내놓고 극복해야 한다는 브루시히의 사고방식을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듯하다.

110) TB: 185쪽. ☞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정체성을 재빠르게 변화시킨 인물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 사기를 당하거나 과거를 감추는데 급급해 흔적을 남기는 등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는 성급하게 서독의 경제 능력에 현혹되어 흡수 통일되는 과정에서 동독인들에게 발생한 정체성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오류를 보여준다.

5.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독일은 장벽 붕괴 후 전환기 시대에 사회·정치·경제 분야에서 발 빠르게 제도적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적 통합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현은 통합이란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를 모두 성취한 상태”여야 온전히 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이한 두 체제를 합하는 외적인 노력과 더불어 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적 통일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¹¹¹⁾ 고 말한다. 브루시히는 통일 후 10여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통일 당시로 돌아가 성찰함으로써 독일인으로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하나의 국가로서 독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5.1 동서독 남녀의 결합

동독인 여성과 서독인 남성이 서로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관계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로 나아갈

111) 권오현: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 초·중등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32집, 독일어문학회, 2006, 272쪽.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남녀 사이의 만남과 이어지는 결말의 모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나타나는 동서독의 통합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대안적 모델로써 더 나은 통합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한다.

- ‘카롤라’와 ‘틸로’

카롤라는 헬프리트 슈라이터의 딸로 동독이 변화하기 시작할 즈음 서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서독으로 건너간다. 정과 인간적인 이해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한 전형적인 동독 여성이던 카롤라는 대학에 등록하고 서독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티로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점차 서독의 관료주의에 길들여지며 서독인보다도 더 서독인 같은 동독인, 이른바 ‘신서독인 Neuwessi’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¹¹²⁾

티로는 서독 출신의 남성으로 카롤라와는 헝가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는 카롤라를 서독으로 데려와 공동생활을 하며 서독의 관료주의적 삶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 장벽 붕괴 후 동독에 있는 카롤라의 집에 방문한 그는 동독에 대한 느낌을 묻는 헬프리트 슈라이터의 질문에 ‘손상된 것’ 같다고 말하는 솔직함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둘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약속한 대로 미국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유년시절의 다른 기억, 그리고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경험한다. 그리고 비로소 이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다.

“지금 여기서 이런 장난이나 칠거야? 계속 꾸물거리고 있을 거냐고!” 카롤라는 격양되어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작센 사투리가 튀어 나왔다는

112) 참조. 김누리: 「동독역사의 알레고리적 회화화-토마스 브루시히의 소설 『우리 같은 영웅들』」. 『독일문학』, 제104집, 2007, 110쪽.

것을 알지 못했다. “야생 지역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거나 해?”

“왜?”

“야생 지역에서 지내본 적 있어?”

“아니.” 티로가 대답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서둘러야만 한다는 거야.”

티로는 카롤라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저렇게 겁을 내는 거지? 휴지통 때문에, 아니면 산에 들어가고 나오는 여행자들이 적어야 하는 명부 때문에? 야생동물 지역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¹¹³⁾

여기서 갈등을 빚어내는 소재는 “야생 지역 Wildnis(TB 547)”으로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진다. 티로에게 있어 ‘야생동물 지역’은 말 그대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출몰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카롤라는 동독에서 사용되던 ‘야생동물 지역’이라는 말이 수많은 짐승들을 풀어 놓은 “사냥 허가 지역 Jagdreservat(TB 552)”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밝힌다. 이에 티로는 야생 지역이 동독 체제의 고위층이 만들어놓은 유치한 ‘사냥터’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사회주의 체제 속 관료들의 행태를 비웃는다. 개념의 차이가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었음을 이해한 티로와 카롤라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도한다.

“우리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해? 동독에서는 통닭구이를 ‘브로일러’라고 부르고 크리스마스 천사는…….”

“‘연말 날개상’? 우리도 그렇게는 안 불러. 크리스마스 천사는 그냥 크리스마스 천사라고 해.”, 카롤라가 말을 중단시키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고 하자. 하지만 오씨들Ossi이 모두 동물 수용소를 야생 지역이라고 믿는다면…….”

“어째서 오씨들이야?” 카롤라가 물었다. “야생 지역에 관한 나의 상상은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녀가 양 팔로 그의 배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걸 이해해야 나머

113) TB: 548-549쪽. ☞

지도 해결돼.”¹¹⁴⁾

제시된 인용문의 말미에 카롤라가 말하듯이 동독인과 서독인이 진정한 상호 이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인을 한데 묶어 생각하는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카롤라의 태도는 『존넨알레』를 통해 동독을 청산해야 할 과거라는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서독인들처럼 개개인의 일상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으며 삶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한다는 브루시히의 의도를 떠오르게 한다.¹¹⁵⁾

카롤라와 티로로 상징되는 남녀의 결합은 갈등을 겪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거쳐 완전히 결합하게 된 남녀를 대표한다. 이들은 카롤라로 대표되는 ‘동독’과 티로가 상징하는 ‘서독’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른 기억과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독일인으로서 하나 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 ‘레나’와 ‘레오’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동독에서 ‘혁명의 여신’으로 인정받았던 레나는 동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자유선거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오빠를 만나기 위해 갔던 팔라스트 호텔에서 레오 라트케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동안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남자들에게 신체적 관계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레오 라트케와는 처음 만난 날 바로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이를 두고 에겔란트는 동서독 남녀의 성행위가 ‘동서독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¹¹⁶⁾

114) TB: 552쪽. ☞

115) 참조. Thomas Brussig: 「친애하는 한국 독자여러분(저자 한국어판 서문)」, 『존넨알레』, 유로, 2005, 7쪽.

그녀는 눈을 떴고, 그녀의 두 눈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구름에 뒤덮힌 듯한 그의 두 눈을 보았다. 마치 그녀가 그의 모든 전류를 다 빼앗아온 듯 했다. 이전에 그의 눈에 있었던 불은 이제 그녀에게로 옮겨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¹¹⁷⁾

레나는 장벽 붕괴 후 계속해서 사회의 흐름에 실망하고 달라진 동독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하며 지나간 날을 그리워한다. 더 이상 혁명을 외치던 1989년 가을처럼 반짝거리는 빛이 나지 않던 그녀의 눈에서 레오와의 육체적 합일을 통해 다시 ‘빛’이 일어난다. 이 모습은 동독과 서독의 결합이 ‘빛’을 내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림으로써 희미해져가는 통일독일의 빛, 즉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기대를 되살리는 듯하다.

레오 라트케는 다소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서독의 스타기자이지만 레나에게는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모습이다. 그는 레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서독의 자본주의 논리를 가르쳐주며 레나와 주변 친구들에게 화폐 통합의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며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태도에 레나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흔들린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레오 라트케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머리 속에서 숫자를 이리 저리 굴러보았고, 상상 속의 숫자에 찍힌 점들을 집중해서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짐작해보며 실제 이익을 계산해 보고 쉽게 번 돈으로 어떤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다. 그 감정은 그들을 장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돈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돈 얘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레나가 화내며 말했다.¹¹⁸⁾

116) Håvard Egeland: 앞의 논문, 73쪽.

117) TB: 427쪽. ☞

118) TB: 445-446쪽. ☞

레나는 레오가 제안한 경제적 논리도, 이에 대해 호응을 보이는 동독의 친구들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순수했던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자본주의에 물들여진 듯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레나가 불렀던 노래를 둘러싸고 저작권료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그것을 계기로 레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레오에게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레오와 함께 뉴욕으로 떠난다.

레나와 레오의 만남이 가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상호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제논리에 거부감을 갖던 레나는 결국 레오의 곁에서 경제 논리 및 체계를 이해하게 된다. 레오는 처음 동독인에게 돈을 주며 조롱하는 눈빛으로 행동을 관찰하던 거만한 서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애정 어린 눈으로 레나를 보듯이 다른 동독인을 바라보면서 독일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이 하는 일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은 남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뉴욕으로 간 레오는 자비네 부세를 소재로 은유와 상징을 곁들여 쓴 자기의 걸작을 출판하기 위해 잡지사에 찾아가지만 “걸레 같은 기사 Waschlappenreportage(TB 540)”라며 거절당하고 뉴욕지사에 가서 ‘애국심’을 되찾아오라는 신랄한 비평만 듣게 된다. 그러나 잡지사의 발행인과 편집장이 말하는 애국심이라는 것은 결국 상업적 시각에서 기사를 쓰던 스타 기자 레오 라트케의 가치관을 되찾으라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가서 예전과 같이 돈이 되고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기사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레나는 그의 기사를 읽고 자신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공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레오에게 또 다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서로가 같은 상황을 두고 공감을 표현하고 서로의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영감을 주기도 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동독인과 서독인은 진실된 통합에 이

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행복했던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걸 당신 같은 서독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우리의 옛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좋아 졌는지 항상 그것만 되풀이 하는 거야. [...] 나는 절대 너희들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¹¹⁹⁾

레나는 ‘당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서독인을 지칭하여 표현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서독은 동독에게 베푼 경제적 도움 같은 것만 강조하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업적’을 강조할 뿐 인간적인 이해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레나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빛을 잃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서독이 바라는 대로 ‘서독에 흡수된’ 형태의 독일 정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동독인과 서독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는 각기 다른 정체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결국 그녀는 레오 곁에 머무는 안정적인 삶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택하게 되고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난다.

- ‘카틀린 브로인리히’와 ‘베르너 슈니델’

카틀린 브로인리히는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라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든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다. 항상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듣고 자라다 보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말도 모두 훈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은 질책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이 건네는 말도 모두 자신을 질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카틀린 브로인리히는 모든 종류의 질책에 관해 지나치게 민감했다.

119) TB: 543쪽. ☞

[...] 그녀의 불행은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질책으로 다가온다고 믿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거절의 수용으로만 경험했다.¹²⁰⁾

동독의 변화와 함께 카틀린 브로인리히가 일하던 작센링 지구당의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사무실에 남아 이삿짐을 싸고 있던 그녀는 “슈타지 물러가라! Stasi raus!(TB 256)” 라는 동독 사람들의 구호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자 카틀린은 슈타지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건물 외부로 나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ir sind das Volk!(TB 257)”라고 외치는 돌발 행동을 한다. 비난을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녀였기에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용기 내어 한 행동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위대는 정말로 카틀린과 다른 사람들이 슈타지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가 보다 목적도 불분명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어딘가에 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슈타지를 바보로 만들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타락시킴으로써 심판하고 싶은 민중들의 의사가 시위로 표출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틀린의 외침으로 인해 민중의 기대는 채워졌고 그들은 모두 흩어진다.

자존심이 상한 카틀린 브로인리히는 그동안 소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모습과는 달리 문이 열려져 있는 베르너 슈니텔의 차에 과감하게 올라탄다. 그녀는 진짜 슈타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앞뒤 분간 못하는 답답한 혁명은 없어도 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당원이 아니었고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이어서 혜택을 받은 일도 없지만 당 사무실이 폐쇄되고 실업자가 된 처지로 인해 추후 독일 사회에서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베르너에게 한탄한다. 비서로 일 해보겠냐는 베르너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는 사기꾼 베르너의 유혹에 현혹되어 그가 가진 서독의 재력이면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부푼 꿈을 꾸게

120) TB: 251-252쪽. ☞

된다. 카틀린의 생각을 간과한 서독인 베르너는 영악하게 이 점을 이용하여 카틀린의 여성성을 취하려 하고 그의 목적을 알면서도 과감한 선택을 하는 카틀린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불을 끄고 난 후에 베르너 슈니텔이 그녀에게 접근한 것에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당 비서로 일하는 동안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해 터득한 것이 관념적으로 강화되었다. 자본주의자가 노동자의 육체를 취한다는 것은 그녀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많은 자본주의의 병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카틀린 브로인리히는 자본주의를 혐오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자본주의로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르너 슈니텔을 만족시켰다.¹²¹⁾

이러한 인물의 사례는 사회 변혁기 속에서 급격하게 자기 정체성을 바꾸려는 동독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카틀린은 슈니텔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여성성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에게 취할 행동을 미리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것과 달리 서독 남자에게 선택받은 여자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자기의 야심을 위해 자발적으로 슈니텔을 성적으로 만족시키겠다고 선택한다. 이는 내성적이고 남의 눈치를 보던 그런 인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발현이다. 자기의 여성성을 내던짐으로써 서독인 남성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모습은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던진 채 서독의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수동적인 통합 태도를 나타낸다.

앞서 카롤리와 티로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상호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독일의 언어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45년의 분단 동안 다양하게 발달되었다.¹²²⁾ 45년 동안 다르게 발달한 어휘 속 개념은 동독의

121) TB: 306쪽. ☞

122) 조윤주: 앞의 논문, 55쪽.

개념은 서독인에게, 서독의 개념은 동독인에게 낯선 느낌을 주었다.¹²³⁾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카틀린과 베르너 슈니텔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한다.

카틀린은 ‘크산티페’를 ‘장크티프세 *Zanktippse*’, 즉 ‘시비 걸기 좋아하는 여사무원’으로 번역했던 것이다. 그 정도는 베르너 슈니텔도 해결할 수 있었고 ‘자우프카파덴 *Saufkapaden*’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자제력 상실’이라고 뜻을 풀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었다. 그녀가 ‘콘썸 *Konsumm*’이라고 쓸 때는 ‘콘썸 *Konsum*’이라는 상점 체인을 말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 가게 앞에 섰을 때야 알았다. 그리고 그 ‘아베파우 *Abehfauer*’란 도무지 뭐란 말인가? 그리고 ‘다용도입방체 *Mehrzweckwürfel*’란? 이 여자는 밤처럼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나, 진짜 곤란한 것은 그가 그녀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¹²⁴⁾

베르너는 카틀린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자 그녀가 멍청하다고 느끼며 혐오하는 감정까지 갖게 된다. 베르너와 카틀린은 결국 헤어짐으로 관계를 정리하는데 카틀린은 베르너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춰주고 대신 자기가 앞으로의 독일 사회에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근무평가서를 베르너의 가짜 신분과 함께 받는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동독 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를 알기 때문에 실익을 챙기는 모습은 서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동독인의 모습을 상징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얽히고설키며 그 당시의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도 동독 여자와 서독 남자의 만남은 중요한

123) 재인용. Olaf Georg Klein: *Ihr könnt und einfach nicht verstehen! Warum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Frankfurt am Main 2004, in: 조운주: *Die deutsche Einheit und die Bewältigung der Vergangenheit in den Werken Thomas Brussigs*, 55쪽.

124) TB: 322쪽. ☞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독’을 대표하는 ‘동독 여자’는 ‘서독’으로 대변되는 ‘서독 남자’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도 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두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거듭나는, 하나 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상태로 만난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작품 속 남녀의 만남처럼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함께 지내는 동안 대립하기도 하고 소통의 과정을 거쳐 하나 됨을 이루면서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쌍의 남녀가 모두 남성은 서독 출신이고 여성은 동독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서독’을 힘과 능력으로 대표되는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반대로 경제적 원조 및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동독’의 무능력함을 남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존하는 성향을 상징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상징한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편견이 투영된 전형적인 묘사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5.2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차이 극복

제도적 통합은 서독 정부의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문화적 차원의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관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운주도 강요된 통합을 통해서는 하나의 국가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동독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며 전환기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내적 통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¹²⁵⁾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인과 서독인은 서로 기쁨의 얼굴로 대면하였으나,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사소한 갈등을 겪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체계

125) 참조. 조운주: 앞의 논문, 52쪽.

의 상이함”으로 인해 “사회적 일체감”을 단기간에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¹²⁶⁾ 이런 상황에서 작품을 통해 브루시히가 제시하는 통합의 한 방안은 ‘소통’이다. 인물 간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소통을 거쳐 어떻게 상호이해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레나의 큰오빠와 레오 라트케는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동독인과 서독인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레나의 큰오빠에게 레오는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극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서독스러운 기자일 뿐이며 허풍떨 듯 큰소리치는 레오의 모습에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 반면 레오에게 레나의 큰오빠는 카메라조차도 옛날식 낡은 라이카 카메라를 고집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답답하고 고지식한 동독인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둘은 ‘사진’과 ‘글’을 통해 같은 사건과 장면을 두고도 남들과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방식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이들에게 주요 소통의 수단은 직접적인 대화보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인 ‘사진’과 ‘글’인 것이다. 이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소통의 수단은 반드시 ‘말’이 아니라는 점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레오는 취재 차 갔던 헝가리의 탈동독자 수용소에서 처음 레나의 큰오빠를 마주친다. 레나의 큰오빠가 작업하는 방식을 지켜본 레오는 곧바로 자기와의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채며 그의 사진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를 인식한다.

레오 라트케는 지켜보면 볼수록 사진사인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뒤죽박죽 속에서 특별한 무엇을 실제에서 끄집어냈다. 그는 레오 라트케가 쓰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¹²⁷⁾

126) 양민석, 송태수: 「독일 통일 20 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4)집, 2010, 7쪽.

레오는 그의 작업 방식에 호감을 느끼고 진가를 알아보았지만 레나의 큰오빠가 “저는 과소평가 당하는 보람으로 삽니다. Ich lebe davon, unterschätzt zu werden(TB 145)”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사회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레나의 큰오빠를 “미치광이 Spinner(TB 145)”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레오가 속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직업관은 언제나 자기의 일과 작품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제1의 목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로 들쭉이는 상황에서 레오 라트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사를 쓰겠다고 자신하지만, 동독에 있는 팔라스트 호텔에 머물면서 레오는 글쓰기의 위기를 겪는다. 한편 레나의 큰오빠는 레오와 팀으로 일하게 되면서 잡지사에서 막대한 금액을 받게 되고 호텔에서 레오와 동급의 대우를 받으며 생활한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되려 부담으로 다가와 레나의 큰오빠는 레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한 영감을 상실하게 된다.

처음에는 편한 변명으로 도피했다. 레오 라트케의 사진 담당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에 맞는 사진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리포터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레나의 큰오빠 또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의 사진들은 의미 없는 임의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만의 사진들은 극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급하게 사라져갔다.¹²⁸⁾

레나의 큰오빠는 자신의 사진만이 갖는 특별한 의미나 삶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으며 사진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던 중 레나의 큰오빠는 레오와 함께 참석한 잡지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서독인과 동독인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파티에 참석한 서독인들을 바라보며 레나의 큰오빠는 동독인들이 흉내 낼 수

127) TB: 29쪽. ☞

128) TB: 148쪽. ☞

없는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날 저녁은 호화로웠다. 가장 큰 호화로움은 손님들에게 있었다. 처음에 레나의 큰오빠는 옷차림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추정해본 그는, 호화로움은 그들의 향기에 있었다.¹²⁹⁾

서독인들이 갖는 우월함에 대해 레나의 큰오빠는 서독사회가 갖는 경제적 우월함이 아니라 동독인들과는 사뭇 다른 ‘정체성’ 차원에서 다른 아우라가 존재함을 느낀다. 이 서독인의 아우라가 동독인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서독의 진짜 모습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브루시히의 전작인 『존넨알레』속 쿠피쉬 부인을 연상시킨다.

쿠피쉬 부인은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고 자의식에 차 보이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드는지, 그들이 어떻게 웃는지, 또 얼마나 대담하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자, 그녀는 서독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여권이나, 신발, 옷가지, 치약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이 저들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¹³⁰⁾

우연히 서독인의 여권을 줍게 된 쿠피쉬 부인은 여권 사진 속의 여성과 동일하게 분장을 하며 서독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지만 화장이나 거짓된 표정으로 따라할 수가 없는 ‘서독인 특유의 분위기’를 깨닫고 오히려 동독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만 더 확고히 깨닫게 된다. 이를 두고 정미경은 통일 후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뚜렷해질 수 있으며, 동독과 서독 사이에 “마음속의 장벽”¹³¹⁾이 유지되는 한 진정한 통합

129) TB: 308쪽. ☞

130) “Frau Kuppisch sah, wie locker und selbstbewußt die auftreten, wie laut die reden, wie gespielt die lachen und wie raumgreifend sie agieren - als sie all das sah, wußte sie, daß ihr zu einem Westler mehr fehlt als nur der Paß, die Schuhe, die Kleider und das Kukident. Und sie wußte, daß sie niemals so werden wird wie die.”

Thomas Brussig: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Frankfurt am Main 1999, 99 쪽. (참조. 토마스 브루시히 지, 이미션 역: 『존넨알레』, 유로, 2005)

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회장에서 레오는 연설 단에 올라가 동독인들이 ‘팩스’를 모른다는 점을 알려주고 ‘자동응답기’를 알지 못해 그 속에 동독인들의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려주며 동독 사회의 열악함과 동독인들의 무지함을 코믹스럽게 조롱한다.

“... 1926년의 전화망이고 전화 문화도 그에 상응합니다. 만일 당신이 비서에게 ‘팩스하세요’ 하면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비서는 바보짓¹³²⁾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기 때문이죠.” [...]

“이것은 자동 응답기입니다.” 레오 라트케가 말했다.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거 나도 압니다. 사람을 무대 앞으로 불러내서 바보 만들다니, 그래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¹³³⁾

레오는 서독의 동료들 앞에서 동베를린에 머물며 알게 된 동독인들의 우둔한 모습을 가감 없이 소개한다. 특별한 과장 없이도 듣는 사람에게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의 언변은 동독인들의 현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는 레나의 큰오빠까지 그의 연설에 등장시키며 자동응답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을 이끌어낸다. 이는 같은 팀이면서도 은연중에 동독인을 낮추어보는 그의 시선이 드러나는 행위로 보여 진다. 레오의 연설을 듣고 있던 레나의 큰오빠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같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으나 자동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레나와 와일드 빌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본인도 그들과 같은 동독인이면서 마치 서독인인 양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있는 이질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레나의 큰오빠는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 300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레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131) 정미경: 앞의 논문, 389-390쪽.

132) 독일어 ‘팩스 Fax’는 바보짓,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는 뜻이 있다.

133) TB: 309쪽. ☞

카세트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레나의 큰오빠는 웃는 사람들을 타할 수 없었다. 와일드 빌리가 레나가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자동 응답기에 말하는 장면, 그렇지만 결국 어찌겠다는 건지 내용 없는 용건이 된 것은 정말 우습고 코믹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와일드 빌리가 결국 헛바닥까지 들먹였을 때는 레나의 큰오빠까지 웃어야 했다.¹³⁴⁾

레나의 큰오빠는 자신을 비롯한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뿐 아니라 레오 라트케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온통 서독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일상을 살다보니 점차 세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같은 동독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을 서독인에 비해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레나의 큰오빠가 던진 중요한 질문은 하나 된 독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레나의 큰오빠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더군다나 그는 통일이 서독화되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문제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었고 언제인가 아니었다. 문제는 바로 ‘독일이란 무엇인가’였다.¹³⁵⁾

“독일은 무엇인가? Was ist Deutschland?(TB 198)” 라는 이 질문은 이 작품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독인과 함께 일을 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동독인으로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하나 된 국가는 어떤 국가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은 어떤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레나의 큰오빠는 그 핵심을 간파하여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134) TB: 312쪽. ☞

135) TB: 198쪽. ☞

이후 레나의 큰오빠는 자신과 전혀 다르다고 느꼈던 레오에 대한 그의 시각이 편견이었으며 그 또한 진중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하이디의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된다. 성전환 시술 도중 사라진 의사 때문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들의 모습은 얼마든지 상업적인 가십거리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레나의 큰오빠는 당연히 레오가 이들을 서독인스럽게,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상업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 형태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의 편견을 깨듯이 레오는 ‘하이디’라는 인물의 일생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적인 관점이 투영된 르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계기로 레나의 큰오빠와 레오는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정신적 소통’을 하게 된다.

레나의 큰오빠도 레오 라트케에게 놀랐다. 그는 이 시끄럽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레오 라트케가 한 명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제공하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감동과 존엄성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일곱 명의 이상한 존재와 진행한 인터뷰 후에 이 성애자이자 수려한 외모를 가진, 성공한 기자인 레오는 이 사람들을 자동응답기의 초보자들처럼 웃음거리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그를 막았다. 이 어떤 것이란 레나의 큰오빠가 찍은 사진이었다.¹³⁶⁾

이처럼 레오는 ‘사진’을 통해 기존의 자기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 및 직업적 태도를 표출하게 되었고, 그의 글을 보고 레나의 큰오빠는 서독인에 대한 자기의 편견을 바로잡고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루시히는 직업적 가치관의 공유라는 정신적 소통을 통해서도 동독인과 서독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36) TB: 314쪽. ☞

5.3 과거 대면을 통한 상처 치유와 화해

개인의 삶은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역사는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깊이 새겨져있는 궤적”이기 때문에 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의 세계와 집단의 경험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한다.¹³⁷⁾ 이 경험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설은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게 하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작중 인물과의 공감과 교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발저의 작품 『유년시절의 정체성』은 “나치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화를 겪어낸 2세대 동독작가의 경험”을 담고 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 시절을 회상하는 이유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과거 극복”¹³⁸⁾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상하고 다시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브루시히는 작품에서 말하고 있다.

브루시히의 작품 속 레나의 큰오빠와 레나는 어릴 적 한 인물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성(性)적 트라우마가 생겨 성장 과정 내내 고통 받는다. 레나의 큰오빠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최면술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집으로 찾아오고 어느 순간 자신은 최면에 빠지게 되지만 의식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레나의 큰오빠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가 없어 스스로를 의심하며 혼란 상태에 빠진다. 그 날 이후 레나의 큰오빠는 아무리 최면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면 상태에서는 자기의 무의식이 반영된 행동만 한다는 내용의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내면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이때의 정체성 혼란이 계기가 되어 그는 철저히 본인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

137) 양민석, 송태수: 앞의 논문, 10쪽.

138) 정미경: 앞의 논문, 372쪽.

도를 형성하게 된다.

“내가 열일곱 살 때였어. [...] 아무도 없게 되자, 저 쪽에 오래도록 앉아있던 사람 하나가 몸을 기울이더니 ‘최면술에 한번 걸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 내 몸은 장난감이었던 거야. 나는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이고 싶지 않았어.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¹³⁹⁾

마찬가지로 레나는 동일한 인물에게 어릴 적 성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어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된다. 레나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춘 후 어린 레나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아픈 아기를 살리러 갈 수가 없다며 레나가 손으로 만져서 “마법의 요구르트 Zauberyoghurt(TB 383)”가 나오게 도와준다면 아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레나는 영문도 모른 채 아기를 살리는 “착한 일 gute Taten(TB 382)”이라 믿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한 뒤 학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 이후 레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레나의 큰오빠와 레나로 하여금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만든 ‘최면술’과 ‘거짓말’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면술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이는 마치 동독이라는 사회에서 눈을 감은 채 최면술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는 동독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소재로 보인다. 최면 상태에 빠진 동독 사람들은 레나의 큰오빠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마비된 상태에 처한다. 쉽게 빠져 나갈 수 없는 최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상태로 인해 더 큰 불안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레나의 큰오빠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다가 이내 자기 정

139) TB: 71-72쪽. ☞

체성을 아예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경이 되어 숨는 걸 선택하게 된다. 그가 가진 본성으로 보면 레나와 같은 편의 사람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어느 쪽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최면술에 걸렸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혹은 자기도 모르는 본인의 내면에 남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있는지 그것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게 된 것이다.

반면 어렸던 레나는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위장하여 거짓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마치 동독 사회가 거짓으로 동독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유지해가는 모습과 닮아있다.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거짓말로 꼬여내어 슈타지 일에 협력을 시키거나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거짓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동독 사회체제의 유지방식이 마치 강압적이면서도 회유하듯이 어린 레나를 속이던 남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여기서 레나와 레나의 큰오빠가 직접 과거의 일을 자기 성찰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걸 Oliver Igel은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극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극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개인 및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⁴⁰⁾ 결국 통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기억도, 상처도 극복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나와 레나의 큰오빠가 서로에게 한 성찰적 고백은 그들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인 것이다.

어렸을 적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레나와 레나의 큰오빠는 동독 사회에 변화가 찾아와 적응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신문에서 과거의 그 남

140) Oliver Igel: Gab es die DDR wirklich? Die Darstellung des SED-Staates in komischer Prosa zur “Wende”, Tönnig 2005, 11쪽.

자가 연극 극단의 단장으로 임명된 마준케라는 남성임을 알게 된다. 레나는 신문을 보여주며 오빠에게 함께 과거의 일을 따져 물으러 가자고 설득하지만 레나의 큰오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그러나 사실은 레나의 큰오빠는 과거의 기억을 대면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될 고통과 혼란을 재현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레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그녀의 큰오빠는 사고의 창백함으로 병약해진, 똑똑하고도 약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의지가 있을 때, 그녀는 그와 함께이든 그 없이 혼자든 플라이츠에 가게 될 것이었다.¹⁴¹⁾

결국 레나의 큰오빠도 마음을 바꿔 레나와 함께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극단에 찾아가 다른 단원들 앞에서 마준케의 과거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그를 비판하면서 통쾌한 복수를 한다. 과거를 극복해낸 레나는 지나온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오래도록 지속될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빛의 모양을 가지는지를 설명한다.

“내가 1년 전에 했던 말 지금도 생각나? 삶은, 내 삶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 반짝거리는 우연이 삶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내가 그 말을 한 곳도 아직 기억해?”

“그럼. 네가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나왔었잖아.”

“그런데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많은 부분들을 조그맣게 잘라서 보면 그 빛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시 전체를 보면 그 반짝임이 잘 보이게 돼, 내 말 이해하겠어?”

“잘 모르겠는데.” 운전에 집중하면서 큰오빠가 대답했다.

“우리를 예로 들면, 밤에 우리 차가 내는 불빛은 하나의 불빛일 뿐이야. 하지만 뉴욕에서는 저녁마다 그리고 밤마다 수많은 불빛들이 덩어리가

141) TB: 387쪽. ☞

되면, 심지어 달에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대. 그리고 내 생각에 인생도 그렇게 때때로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우연들이 반짝이는 빛을 조금만 낸다면 아무 상황도 발생하지 않아. 하지만 지난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내 생각에 그렇게 되면 빛이 나는 거야. 그 빛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 보게 되는 아주 밝은 빛이 될 거야.”¹⁴²⁾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과거의 단절된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또 다른 자신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성찰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자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은 자유로운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한다.¹⁴³⁾

5.4 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

작품 속 세 인물의 죽음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장 먼저 와일드 빌리는 독일 통일 이후 새롭게 맞이한 “새해맞이 축제 Silvesterfeier(TB 351)”에서 누군가가 던진 병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환희에 찬 사람들 속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구급 대원 와일드 빌리의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며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얼마나 ‘미친 나라’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인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발데마르 부대는 번지 점프대에서 발에 달린 보조 장치를 제 손으로 떼어내고 뛰어 내리는 자살을 선택한다. 발데마르의 자살은 ‘지난 과거를 벗어던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에 대해 조운주는 독일인들이 동독이라는 보호 장치 없이 그들 스스로 과거를 벗어던지는 것만이

142) TB: 600쪽. ☞

143) 양민석, 송태수: 앞의 논문, 13쪽.

과거와 관련된 “죄책감 Schuldgefühlen”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이며,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¹⁴⁴⁾

마지막으로 위르겐 바르테의 죽음은 동독 사회의 모든 아픈 역사를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독일 사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혁명을 주장하던 사회운동가 위르겐 바르테는 통일되기 전 동독 사회에서 슈타지에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쏘인 방사선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방콕의 코사무이로 여행을 떠난다. 그 곳에서 그는 난생처음 겪는 더운 공기 속에서 마치 병을 어루만지는 듯한 마사지를 받으며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고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아내와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는 과거 슈타지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원망하지만 “불행이 끝나가고 있다 das ist jetzt vorbei, das Unglück(TB 605)”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가 백혈병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죽은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달라는 것이다. 위르겐 바르테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과거 동독의 강압적인 재판과 처벌에 의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 병에 굴복하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이 ‘괴물’과도 같은 동독이라는 국가에게 굴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난 이제 죽을 것이고, 당신에게 마지막 뜻을 전하려고 해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코코넛 열매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멋진 죽음일 거예요. [...] 나에게 방사능을 쏘이고 독을 발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선 안돼요. [...] 내 죽음은 그들이

144) 조윤주: 앞의 논문, 54쪽.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행운이자 자유였다고 이야기해줘요. 나는 바닷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¹⁴⁵⁾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평온을 느끼며 마사지용 평상 위에서 고요한 죽음을 맞이한다. 위르겐 바르테의 유골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꼈던 코사무이에 안장되고, 유골 안장을 마친 뒤 그의 부인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비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는 마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위르겐 바르테가 마지막에서야 얻게 된 진정한 자유를 기뻐하면서 또 다른 평화와 자유의 허리케인을 일으켜 독일 사회로 날아갈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바르테 부인이 무덤에 흙을 뿌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의 움직임에 놀라서 비행을 시작한 나비 한 마리를 보았다.¹⁴⁶⁾

죽음은 “인간이 가장 극단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미의 절정”¹⁴⁷⁾이다. 브루시히는 인물의 죽음을 통하여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회상의 끝에 지난 과거의 상흔을 떨쳐내 버리는 그의 서술기법은 통일 독일에서 ‘진정한 통합’을 숙고하게 만드는 전환기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준다.

145) TB: 605-606쪽. ☞

146) TB: 607쪽. ☞

147) 김춘식: 앞의 논문, 108-109쪽.

6. 결 론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은 서독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서독 사회를 지탱하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서독인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립할 생각 없이 계속해서 서독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하는 동독인들의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변화한 세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동독의 물건들을 고집하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은 서독인의 눈에 우둔하고 어리석게만 보인다. 이런 서독인의 시선은 동독인에게도 여지없이 전달 되어 같은 사회 속에서도 마치 “이등국민 zweiklassig”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듯한 부당하고 소외된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며,¹⁴⁸⁾ 과거에는 그렇게도 암담했던 동독에서의 생활에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기 붐’이 독일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불만과 차별 의식은 하나의 국가 속에서 동독정체성을 따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했고, 독일은 내적 통합에 이르지 못한 채 또 다시 국민들 사이의 정체성 분열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된다. 브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에서도 인물 간 갈등 및 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혼란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장벽이 열리고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 다시 말해서 그 ‘끝’에 도달했다는 기쁨에 환호하던 동독인들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서독에 처음 건너가 지하철을 타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백화점 화장실에서 돈을 지불하며 서독 사회에 실망감을 느끼는 동독인들의 모습은 앞으로의 독일 사회가 통합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를 단번에 암시해 준다.

3세대 동독 작가 세대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apolitical” 글을 쓰거나

148) 조윤주: 앞의 논문, 50쪽.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유머 light-hearted humor”를 곁들여 정치를 다룬다.¹⁴⁹⁾ 토마스 브루시히의 작품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도 독일의 전환기를 두고 정치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보다 가벼운 유머와 풍자를 통해 다룬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가 각 개인의 일상을 한 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혹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학은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속에도 사회의 현실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흔들리고 유지되며 새롭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심리적 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사회 질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 공감, 사회적 배제 집단의 포용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획일적 사회규범 수용이라는 사회통합의 부정적 의미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성 유지와 조화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선부른 변화나 변모를 억지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각기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형성해 온 정체성을 새롭게 공유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서독 사회를 받아들이는 동독 사람들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변화를 인지한 후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바꾸가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변화한 사회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 세태에 맞추어 당에 충성을 바치던 태도를 버리고 변화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간

149) Nora Kowalik: Der Wandel von Identität und der Beziehung zur DDR-Gesellschaft und Ideologie in drei Werken über die DDR nach dem Mauerfall, Laramie, Wyoming, 2009, 56쪽.

동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소외감,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인물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상을 보았을 때 통일이라는 사회 변화가 독일인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치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면서 갖게 되는 인물의 태도 및 정체성 또한 각기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이 통일 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시와 억압 속에 살던 동독인들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직접 시위에 참여하여 혁명을 추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을 상징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시작된 빛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가장 큰 빛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갈등과 혼란,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어둠’의 측면을 동시에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브루시히의 작품 속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감정 및 태도, 정체성의 측면을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며 명확히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위험하다는 것을 본 연구자도 인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빛과 어둠을 대립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대적 개념에서 대립되는 관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전환기 시대의 독일과 통일 당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통일 대박’을 꿈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문제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방안 모색과 마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¹⁵⁰⁾ 우리 사회는 독일보다 상호왕래가 없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전환기보다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독일 통일을 둘러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을 참조하여 활용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는 통일 방안을 강구해야

150) 정영호: 앞의 논문. 60-61쪽.

한다. 전환기 문학 작품을 통한 통일 독일 사회에서의 갈등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하나의 국가 내에서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미래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후 주 (Zitate)

2.3.2 소재의 상징성

(37) man konnte meinen, sie *wohnt* in dieser aufregenden Zeit. Lena, die das Einmalige, das Nochnieerlebte und das Niewiederkommende dieser Wochen verkörperte, macht □ einer ganzen Stadt Lust auf Veränderung, auf Revolution und auf Freiheit.

(44) »Hast du schon gehört?« sagte sie zur Begrüßung. »Es gibt eine neue Theorie. Die Chaostheorie.« Sie rückte einen Stuhl zurecht, darauf bedacht, das Gleichgewicht nicht zu verlieren. Als sie saß, sagte sie: »Alles ist Chaos!« Sie warf die Hände in die Luft, um zu zeigen, was sie mit *alles* meinte. Sie war noch immer außer Atem und mußte ein paarmal tief Luft holen, ehe sie weiterreden konnte. »Die Chaostheorie sagt, daß der Flügelschlag eines Schmetterlings in Thailand etwas in Gang setzen kann, was zu einem Hurrikan in den USA führt.«

(45) »... Weil das nämlich bedeutet, daß der ganze Zauber hier auch mal zu Ende gehen kann.«

Lenas großer Bruder war sprachlos. [...]

»Ich kann mir zwar nicht vorstellen, wie es weitergeht«, sagte er, verwirrt davon, wie leicht das Unmögliche zu formulieren war, »aber ich kann mir auch nicht vorstellen, daß es zu Ende geht.«

»Doch!« sagte Lena. »Mit der Chaostheorie ist das aber ganz einfach.«

2.3.3 서술적 특성

(48) Wie der eine Familie fotografierte, die Schokoriegel verzehrte - der ältere Sohn genüßlich, der jüngere trotzig, der Vater erschöpft und die Mutter selig.

(51) Lenas großer Bruder wußte seit langem, daß die besten Fotos dann entstehen, wenn er überhaupt nicht bemerkt wird. Der beste Fotograf ist der unsichtbare Fotograf.

3.2 ‘빛’과 ‘어둠’의 대립: 변화 추구 혹은 체제 유지

(55) Für Paulchens Verschwinden gab es eine Erklärung: Er wollte rübermachen. Seit dem Mai, als die ungarische Regierung den Eisernen Vorhang in eine grüne Grenze verwandelt hatte, war das ganz einfach. Wer ein Visum für Ungarn hatte, konnte nach Österreich, und wer in Österreich war, hatte es geschafft. Der war im Westen, unwiderruflich.

(57) Sie fragten die junge Frau, sie baten den großen Bruder um Rat - nur Paulchen zogen sie nicht hinzu. Als er sich verabschiedete, nahmen sie kaum Notiz von ihm.

Am nächsten Tag wurde die junge Frau nicht von Paulchen angerufen. Paulchen kam auch nicht zur Arbeit und zur Probe. Paulchen war verschwunden, wie auch sein gelber Trabant.

(58) Paulchen fragte weder nach Lena noch nach *PlanQuadrat*, und sein Desinteresse war echt. Paulchen wollte ganz neu anfangen.

Wollte nicht mehr der sein, der er war. Wollte nicht mehr der Radiobastler sein, der einer Band das Profil verleiht, aber nicht aufs Foto darf. Wollte mit seinen neunundzwanzig Jahren nicht mehr Paulchen genannt werden. Wollte nicht mit einer Freundin zusammensein, die ihn nicht ranläßt.

(59) Carola Schreiter war tatsächlich mit Thilo, ihrer Urlaubsbekanntschaft aus dem Rheinland, durchgebrannt. Er hatte ihr von Berlin erzählt, von seinem Soziologie-, Ethnologie- und Publizistikstudium, von seiner Kreuzberger WG und von einer »Reise nach Amiland«, die er für das nächste Jahr plante. Er erzählte von einem Leben, das sich Carola Schreiter auch für sich vorstellen konnte.

(60) Die Grenze nach Österreich wurde nicht mehr scharf bewacht, und mit Thilo konnte sie riskieren, auf die andere Seite zu gelangen. Es war wie ein Spiel.

(61) Sie fühlte sich verraten und verlassen, und sie wußte, daß sie dieses Gefühl ohne Vorwurf gegen Paulchen und ihren großen Bruder fühlen mußte. Sollte sie ihnen wünschen, zu diesem Bahnhof zurückzukehren, mit seinen quietschenden Türen, seinen gesächselten Ansagen, seinem Dreck, seiner Tristesse? Und wenn das ganze Land nicht viel besser war als dieser Bahnhof-konnte sie ihnen das Weggehen verübeln? Nein, das konnte sie nicht. Und weil das so war, fühlte die junge Frau das erste Mal einen starken, umfassenden Haß, der zu ihrem eigenen Erstaunen, sogar gegen ihren Willen, eine durch und durch politische Empfindung war.

(63) Das soll mir das Mädels bloß nicht antun, dachte Dr.-Ing. Helfried Schreiter. Ich bin ein Mann in leitender Position, trage Verantwortung für den riesigen Sachsenring, die Produktion des Trabant. Aber wenn Carola rübermacht, dann bin ich die längste Zeit Generaldirektor gewesen.

(64) Es war Dr.-Ing. Helfried Schreiter ein Rätsel, wie Demonstranten etwas durchsetzen wollen. Sollen sie doch gehen und krakeelen, es bleibt ja doch alles beim alten.

(65) Schließlich wurden die ABC-Schützen von ihrer Klassenlehrerin aufgerufen. Wer seinen Namen hörte, mußte auf die Bühne. Dort stand ein Eimer mit roten Nelken, und jeder Schulanfänger wurde von einem Kind der zweiten Klasse mit einer Nelke begrüßt.

Familie Lange war spät gekommen. Der Saal war voll, und wie immer waren nur noch vordere Plätze frei. Zweite Reihe. So konnte Staatsanwalt Matthias Lange den entscheidenden Moment beobachten. Es war nur ein winziger Zwischenfall, eine kleine Irritation in der reibungslosen und langweiligen Veranstaltung: Die Lehrerin rief einen Namen auf- und kein Kind erhob sich. Sie rief den Namen etwas lauter und deutlicher. Das Ergebnis blieb dasselbe. Die Lehrerin schaute irritiert nach unten, ihre Augen suchten die Direktorin. Die gab diskret die Weisung »Weiter!«. Ein Wort in der Stille. Jeder im Saal konnte es hören. [...] Bemerkenswert jedoch fand Matthias Lange, was diese leise Order *Weiter!* bewirkte: Man konnte die Augen verschließen. Und dann ging es auch weiter.

(66) Die Direktorin und der Staatsanwalt sahen auf den leeren Blecheimer am Bühnenrand, und Matthias Lange sagte verlegen: »Nun

ja.«

>Nun ja<, wollte er sagen, *wir haben getan, was wir konnten.*

3.3 ‘빛’의 순간: 장벽 붕괴 후의 환희

(68) Das Dunkle war weg, Optimismus, ja Euphorie dominierte. Es wurde viel gejuchzt und gerufen, dazu wurde rhythmisch geklatscht. Alles bewegte sich, alle schienen sich irgendwie abzureagieren. Es war Leben in der Masse. Immer wieder lachten Leute ohne erkennbaren Grund auf, als hätten sie Drogen genommen. Die Ahnung von Freiheit war berauschend, beglückend, und daß Demonstrationen eine so körperliche Erfahrung sein können, hatte niemand gedacht; sie kannten nur das angeordnete Vorbeitrotten an Tribünen.

(70) »Wir haben ja nie offen gesagt, was wir denken. Wir haben es nie gelernt. Und wenn ich jetzt hier oben stehe, dann weiß ich nicht, was ich zuerst sagen soll. Ich finde, wir müssen auf jeden Fall weitermachen.« Sie wurde von Beifall unterbrochen. »Ja! Wir müssen weitermachen. Es hat doch gerade erst angefangen, oder?« Jetzt hatte sie gelernt, den Beifall zu locken, und siehe-er kam! [...]

Lena lächelte, und ihre blauen Augen leuchteten [...] Der Himmel über ihr war voller zerwühlter weißer Wolken, doch Lena war erleichtert, ja, wie befreit. Nicht nur, weil sie zum Mikrofon gegriffen hatte und sich alle um sie scharten und ihr applaudierten, sondern auch - das zeigte ihr erinnerungsvoller Blick-*weil etwas vorbei ist.* Die Anspannung, die finstre Gefahr waren weg. Ihre Gesichtszüge waren harmonisch.

(71) »Ich habe diese Nacht etwas geträumt. Ich habe geträumt, daß wir alle vor Freude die Blätter hochwerfen, die auf der Straße liegen. Überall wirbeln Blätter herum. Ich weiß nicht, was passiert ist, aber es steht ein großes, ein unermeßliches Glück bevor, noch in diesem Herbst.«

(74) Immer wieder fielen ihm Menschen um den Hals und riefen: *Wahnsinn!* Er ließ es geschehen. Auch mit ihm stimmte etwas nicht - er wurde immer wieder von Lachanfällen gepackt. Bis in die Morgenstunden war Lenas großer Bruder unterwegs, ein lachender Wanderer im Märchenland.

(75) Verena Lange redete pausenlos, sie befand sich in einem rhetorischen Ausnahmezustand. Irre vor Glück. Mehr Luft als Worte. Ihre Erzählung handelte davon, daß sie eben erst nach Hause gekommen waren, Karli zunächst aufs Klo mußte und sie eine Platte auflegen wollte. Da sie sich mit Karlis Anlage nicht auskannte, schaltete sie versehentlich das Radio ein. Sie mußte auf Karli warten, daß der den Plattenspieler in Betrieb setzt, und so lief die ganze Zeit das Radio, aufgeregte Stimmen... Im selben Moment, als Verena begriff, was sie da hörte, rief sie: *Karli, die Mauer ist auf* [...]

»Ich muß für Katja doch was mitbringen, einen Beweis! Wenn ich der morgen früh erzähle, daß ich im Westen war, da glaubt die doch, ich habn Knall!«

(76) Doch Matthias Lange feierte nicht. »Mensch, freu dich!« riefen ihm fast jede Minute unbekannte Leute zu, und bereits dreimal wurde er zur Aufmunterung geküßt, bekam *einen Schmatz auf die Backe*. Mensch, freu dich! Er konnte sich nicht freuen. Warum eigentlich

nicht?

(77) Am Montag rief er erneut beim Innenminister an. Sein Verschwinden war in der Zwischenzeit fast zu einer Staatskrise geworden; er wurde fieberhaft gesucht. Die Nerven von Valentin Eich waren angegriffen. [...]

Er bat den Innenminister, ihn aus Berlin herauszuholen; er wollte »alles sagen«, beteuerte er. Der Innenminister spürte, daß Valentin Eich mit den Nerven am Ende war: Weder mit der Bahn noch dem Flugzeug wollte er Berlin verlassen und schon gar nicht mit dem Auto. Auf die Frage des Innenministers, wie er sich das vorstelle, antwortete Valentin Eich düster: »Ich weiß nicht.« Er war davon überzeugt, daß die Stasi seinen Zug anhalten, sein Auto stoppen, ja, sogar sein Flugzeug zur Landung zwingen werde, mit Abfangjägern.

3.4 ‘빛’과 ‘어둠’의 혼재: 실망하는 동독인과 불평하는 서독인

(78) Dann sah Lena eine Tafel, auf der ein Gulasch sehr vorteilhaft fotografiert war, ein Gulasch aus saftigem Rindfleisch, von einer glänzenden Soße umschlossen. Ein Stückchen Fleisch lag dabei, soeben aufgebrochen, innen rosig, mit kräftigen Fasern, und eine herzhaft duftende Schwade stieg auf... Ihr lief das Wasser im Munde zusammen, obwohl sie sich dagegen wehrte, heftig wehrte. Denn die Tafel warb für Hundefutter. Von Stund an haßte Lena jegliche Werbung. Wenn sie dir Appetit auf Hundefutter machen, dann geht das zu weit, entschied Lena.

(79) Sie streunte umher und wurde wütend auf sich selbst, wütend,

weil sie es nicht schaffte, an diesem glücklichen Tag glücklich zu sein. Alles war verkorkst. Dieses merkwürdige Auseinanderlaufen an der Grenze. Dieses ratlose, ziellose Umhertappen in Westberlin. Die Begegnung mit Roger. Das Herumfahren mit der Linie 1, in die nirgends Gassenhauer singende Wilmersdorfer Witwen eingestiegen sind. Ihre Unternehmungen waren ohne Resonanz geblieben–um so intensiver dachte sie an ihre Karl-Marx-Städter Erfahrungen [...].

(80) Er knipste die überflüssigsten Bilder seines Lebens.

Später traf er Lena. Ein unglaublicher Zufall. Und als Lena dabei war, glückten ihm auch die Fotos.

(81) *Da schnurpst nichts*, sagten die einen, *Mit bloßen Händen erwürgt*, der nächste, *die Schönsten sind aus dem Dschungel*, die dritten, Lena sagte: *Das mit dem Hundefutter geht zu weit*, und ihr großer Bruder sagte: *Ich hab alles verknipst*.

Als letzter kam der wilde Willi. Er war zu besoffen, um noch fahren zu können; [...] Der wilde Willi sagt: *Irrland. Wir müssen Irrland werden!*

(83) Aber immer wieder hörte er Laute des Staunens und der Bewunderung, ein aufgeregtes »Du, guck mal, da!«. Ob es die Schaufenster waren, ein schnittiges Auto oder ein witziger Blickfang zu Werbezwecken–wenn er diesen Leuten zuhörte, dann wurde ihm bewußt, als wie sensationell seine gewöhnliche Welt von denen empfunden wurde.

(85) Nicht um simplen Ladendiebstahl ging es ihm, es ging ihm um Aufruhr. Einen Intershop zu plündern, das gehörte zu den

Standardphantasien derer im Lande, und in Zeiten wie diesen lagen die Hemmschwellen niedrig, jeder naschte vom Gefühl des Aufsässigseins; [...] Und nun hatten sie ihn im eigenen Laden, den Kampf zwischen Chaos und Ordnung.

4.1 사회변화가 야기한 인물의 정체성 손상

(88) Ich hatte vor denen auch innerlich einen gewissen Respekt. Es ist blöd, aber ich hab mich sogar mit denen *identifiziert*, und das ging dann leider zu weit. Ich war, wie die mich wollten. War ein gehorsamer Polizist, der mit Initiative, nicht wahr, seine Pflicht erfüllt. Wenn es hart auf hart gekommen wäre, da hätte ich mitgemacht. Wäre dageigewesen. Aber auf der falschen Seite.« Marco spürte, daß ihm der Mund trocken geworden war. »Als diese Sache mit den Zügen war«, erinnerte er sich, »sollten wir den Bahnhof abriegeln. Und da steht vor mir eine, so alt wie ich, und die macht mich total zur Schnecke. Die war so wütend auf den Staat, das System, und sie hatte so recht in ihrer Wut. Zehn Minuten bestimmt hat die mich runtergeputzt. Ob ich denn keine Ehre hätte, ob ich mir toll vorkomme, ob ich nicht mitkriege, daß alle die Schnauze voll haben von diesem Kindergarten, ob ich mich nicht schäme, wenn ich in den Spiegel gucke, ob mich meine Mutter nie geliebt hat, wie ich denn nachts ruhig schlafen will, wenn ich mich für so was hergebe. Ob meine Freundin weiß, was ich für einer bin-wenn ich überhaupt eine habe.-Ich hab versucht, sie zu ignorieren, so wie man einen armen Irren ignoriert, aber ihre moralische Überlegenheit, die war einfach ... unabweisbar.[...]«

(89) »[...] Und dann begannen die Ereignisse. Der Marco bei der Bereitschaftspolizei. Im Betrieb ging es drunter und drüber, Neues Forum, Montagsdemos, Streik–hör mir uff. Und keenen hats interessiert, daß mir die Tochter weggekommen ist. Schreiter, Generaldirektor, inner Partei–also Betonkopf. Eener vom System. Eener, der beseitigt werden muß. Aber daß es an nem Vater nicht spurlos vorübergeht, wenn dir die Tochter wegkommt, auf den Gedanken kommt keiner.« [...]

»In der Nacht, damals, am Balaton, da ist was zerbrochen. Seitdem fühl ich mich wie ein Automat. Am liebsten würde ich mich krank schreiben lassen. Ich will nicht mehr. Ich *kann* auch nicht mehr. Mich im Garten nützlich zu machen würde mir reichen. Die Jahreszeiten erleben. Wenn man den Schnee so sieht...«

(90) Die Wartezeit für einen Trabant lag bei vierzehn Jahren, und jedes Krachen der ineinanderfahrenden Trabis ließ vor dem geistigen Auge Dr.-Ing. Helfried Schreiters Jahreszahlen aufblitzen, die in Vierzehnjahresschritten in die Vergangenheit führten. [...] Welch ein Frevel, ein Auto kaputtzufahren, auf das so lange gewartet worden war! [...] Es war eine Sünde, fand er, eine Untat, Frevel.

(91) Sie dachte fast gleichzeitig *Mein Gott, den kenn ich!* und *Mein Gott, ich kenn den ja gar nicht!* und sie wußte nicht, welcher Gedanke der richtige ist. [...] Er hatte mal von irgendwelchen Fotos erzählt, und sie hatte selbst da nicht geahnt, mit was für einem sie sich eingelassen hatte: Mit einem, dem es nichts ausmachte, so ausgestellt zu werden als *Der nette Mann von nebenan*. [...] Wer weiß, villeicht war Karli ja wirklich ein Kinderschänder, vielleicht wurde er es sogar *durch sie*.

4.2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유지 혹은 상실

(92) »Irgendwie bin ich nicht mehr im Rollschuhalter«, sagte Lena nach einer Weile. »Ich bringe jetzt meine Rollschuhe unter die Erde.«

(93) Doch Lenas großer Bruder, der immer stolz auf Lena war und sie immer bewundert hatte, fand den Auftritt mißraten und die ganze Inszenierung lächerlich. Lena glaubte noch immer an Liedersingen und Rollschuhfahren. Sie hatte den Moment verpaßt, an dem die fröhliche Revolution zu Ende war. Sie *war* zu Ende. Sie war in dem Augenblick zu Ende, als es eine Regierung gab, die ihre Macht zur Disposition stellte. Jeder konnte sie haben, die Macht. Wenn du mitmischen willst, Lena, dachte ihr großer Bruder, dann stell dich auf, laß sich wählen, vorwärts marsch, ins Parlament! Mit Rollschuhen läßt sich nichts mehr beweisen—jetzt zählen nur noch Kreuzchen.

(94) Lena fand es eine klassisch dumme Idee, an einem kalten Märzvormittag mit Cola zu locken. Doch die Cola fand reißenden Absatz. [...]

Manche entschieden sich, die Büchsen mitzunehmen, wozu sie vom Kandidaten ausdrücklich ermuntert wurden: »Trinken Sie sie morgen auf den Wahlsieg der Allianz!«

(95) Und wer glaubt, daß etwas nur deshalb besser ist, weil es aus dem Westen kommt, der soll sie auch gleich wählen. Dumm kamen ihr die Menschen vor, schafsdumm. Kein halbes Jahr war die Sache mit den Zügen her. Als sie sich am Bahnhof um Kopf und Kragen redete. Damals waren die politischen Verhältnisse so elementar und unerträglich. Daß all dieser Aufruhr in Wahlen mündete, die mit

Coca-Cola-Dosen entschieden werden sollten, erschien ihr als einziger großer Verrat.

4.3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적응 실패로 인한 정체성 혼란

(99) »Alle haben die Freiheit, nur wir nicht«, sagte eine Stoppelbärtige, mit Männerstimme. Es war der traurigste Satz, den Prof. Dr. Rüdiger Jürgends seit Wochen gehört hatte.

(100) Eine Blinde in der Nationalgalerie. Keine Sehschwache, sondern eine Blinde. Die Blinde zahlte mit Schwerbeschädigten-Ermäßigung nur halben Eintritt und schloß sich einfach einer Gruppe skandinavischer Parlamentarier an, deren Führung die Kustodin Verena Lange auf ausdrücklichen Wunsch des Außenministeriums selbst übernommen hatte. Die Blinde ließ sich mit der Gruppe vor die Bilder Adolph Menzels, Casper David Friedrichs und Max Liebermanns führen und hörte zu. Und dann diskutierte sie herum, zweifelte, verbesserte, belehrte. Es war absurd.

(101) Die Geschichte von Sabine Busse ist, in einem Satz erzählt, eine Glücksgeschichte, es ist, *die* Glücksgeschichte: »Sie kam blind zur Welt und bekam nach einunddreißig Jahren das Augenlicht geschenkt.« Wer die Geschichte hört, freut sich für sie. Niemand will ihre Geschichte als Unglücksgeschichte hören, ohne Chance auf ein Happy-End. Gewiß, sie hat es gewollt. Doch was damals noch niemand wußte, am wenigsten sie selber: Sie wollte sehen und zugleich blind sein. Jetzt ist sie weder das eine noch das andere. Das Sehen bereitet ihr keine Freude, und die Blindheit beherrscht sie nicht

mehr. Sie ist blinder als sie es je war.

4.4 경제적 · 사회적 이익 추구를 위한 정체성 변화

(103) Dennoch gab es eine gewisse Vertrautheit zwischen ihnen. Sie waren dieselbe Generation, in derselben Partei und derselben Gewichtsklasse. Alfred Bunzuweit bediente den großen Devisenerwirtschaftler, der außerhalb aller Hierarchien zu stehen schien, als sei das Palasthotel sein Haus, das Inventar sein Besitz und das Personal sein Gesinde.

(104) Er wußte nicht, was er tun sollte. Er wußte nicht mal, was er durch sein Tun vermeiden oder herbeiführen sollte.

Aber jetzt, drei Minuten vor drei, als er den Sitz der Krawatte in seinem Spiegel überprüfte, da wußte er, was er wollte: Er wollte Judith Sportz wieder ins Bett kriegen. [...]

Und so legte sich Alfred Bunzuweit am Abend auf die Lauer.

(105) Ja, sein Beherbergungsdirektor und sein Verkaufsdirektor hatten schon die Bankpioniere im Doppel an der Seite – während sein Freund Valentin Eich zur Unperson, zum Staatsfeind geworden war.

(106) »Mein Vater«, sagte Schniedel etwas fahrig. »Viel zu tun. Strategisch. In der Automobilindustrie stehen große Umbrüche bevor. In zehn Jahren wird es in Europa nur noch sechs Automobilkonzerne geben.«

Alfred Bunzuweit entfuhr ein verblüfftes »Ach was«, über das er sich ärgerte. Das war gewiß nicht der Ton, der dem Thema

Konzentration von Großkonzernen gerecht wurde. Vielleicht verführte ihn Schniedels Milchgesichtigkeit zu solchen Nachlässigkeiten.

(107) »Unsere Leser kennen so etwas nicht«, sagte er in seiner Verlegenheit.

(110) Der Fotograf hatte Gisela Blank geknipst, als sie sich den Brandfleck anschaute. Der Brandfleck, der von der Verbrennung ihrer Akte zurückblieb. Sie fühlte sich auf eine unerklärliche Art ertappt. Der Fotograf schaute sie so merkwürdig an.

Ruhig bleiben, redete sich Gisela Blank zu. Das *kann* der nicht wissen. Das *kann* der nicht wissen.

5.1 동서독 남녀의 결합

(113) »Machst du jetzt hier irgendwelche Spielchen? Willst du jetzt noch rumtrödeln?« fragte Carola erregt. Sie sächselte plötzlich, ohne es zu merken. »Weißt du, was es bedeutet, in der *Wildnis* zu sein?«
»Wieso?«

»Warst du jemals in der *Wildnis*?«

»Nein«, erwiderte Thilo.

»Na, dann kann ich dir nur sagen, daß wir uns ranhalten müssen.«

Thilo verstand nicht, was mit Carola war. Warum hatte sie solche Angst? Wegen der Papierkörbe, wegen der Bücher, in die sich Wanderer ein- und austragen sollten? Was war so schlimm daran, in der *Wildnis* zu sein?

(114) »Wie sollen wir uns verstehen? Im Osten habt ihr für

Brathähnchen *Broiler* gesagt, und der Weinachtsengel hieß ...«

»Jahresendflügelfigur«, unterbrach Carola, »hat kein Mensch gesagt. Der Weinachtsengel hieß Weihnachtsengel.«

»Na, meinetwegen. Aber daß die Ossis alle glauben, die Wildnis wäre ein ... Tierghetto.«

»Wieso die Ossis?« fragte Carola. »Meine abgefahrenen Vorstellungen von Wildnis sind meine ganz persönliche Note.« Sie schlang ihre Arme eng um seinen Bauch und schnurrte. »Ich bin nicht wie jede. Und wenn du das verstanden hast, dann geht auch der Rest.«

(117) Sie öffnete die Augen, und sie wußte, daß es aus ihren Augen leuchtet, und sie sah seine Augen, den Blick verhangen, und ihr war, als hätte sie all seinen Strom abgezogen. Das Feuer, das seine Augen vorher noch hatten, schien in sie gelangt zu sein.

(118) Dann schwiegen sie, rauchten und dachten über Leo Lattkes Angebot nach. Sie rechneten. Sie schoben Zahlen in ihren Köpfen hin und her, schauten mit konzentriert zusammengekniffenen Augen auf imaginäre Punkte. Sie überschlugen ihre finanziellen Verhältnisse, rechneten den baren Nutzen aus und welche Wünsche sich mit dem leichtverdienten Geld erfüllen ließen. Ein neues Gefühl erwachte. Es bemächtigte sich ihrer nicht, aber sie lernten es kennen: die Geldgier. [...]

»Gibt's denn nichts Besseres, als über Geld zu reden?« fragte Lena ärgerlich.

(119) »Das Glück schmeckt fad inzwischen. Und wenn man das einem von euch erzählt, das wollen die nicht hören. Immer nur, wie

schlimm es damals war und wie phantasisch jetzt. [...] *Ich werde nie dazugehören*, das habe ich noch nie so deutlich sagen können. Erst jetzt, durch diese Reportage.«

(120) Kathleen Bräunlich war empfindlich, überempfindlich gegenüber jeder Art von Zurechtweisung. [...] Darin lag ihr Unglück–daß sie glaubte, die Welt würde ihr als einzige große Zurechtweisung gegenüberreten. Daß sie ihr Dasein nur in Graduierungen von Ablehnung erlebte.

(121) Daß sich Werner Schniedel, nachdem er das Licht gelöscht hatte, an sie heranmachte, wunderte sie nicht. Sie hatte es sogar erwartet. Schließlich war sie durch ihre Arbeit im Büro des Parteisekretärs ideologisch so weit gefestigt, daß sie um das ganze Ausmaß kapitalistischer Ausbeutung wußte. Daß ein Kapitalist Zugriff auf den Körper der Werktätigen hat, war ihr wohlbekannt–das sollte nur eine der vielen Abscheulichkeiten des Kapitalismus sein. Doch Kathleen Bräunlich wollte den Kapitalismus nicht abscheulich finden, im Gegenteil: Sie wollte zu ihm überlaufen. So befriedigte sie Werner Schniedel–freiwillig und so gut sie eben konnte.

(124) Kathleen hatte sich Xantippe als *Zanktippse*, also als *streitsüchtige niedere Büroangestellte* übersetzt. Das konnte Werner Schniedel noch entwirren, und auch Kathleen Bräunlichs durchaus ernstgemeinte Wortschöpfung *Saufkapaden* ließ sich als *Disziplinlosigkeit im Zusammenhang mit übermäßigem Alkoholgenuß* entschlüsseln. Daß sie mit *Konsum* einen Laden der Kette Konsum meinte, begriff er erst, als er vor solch einem Laden stand. Aber was war ein *Abehfauer*? Was ein *Mehrzweckwürfel*? Diese Frau war

dumm wie die Nacht, aber das eigentlich schlimme war: Er konnte ihr nicht folgen.

5.2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차이 극복

(127) Je länger Leo Lattke zuschaute, desto mehr gefiel ihm der Fotograf. Der fotografierte nicht wie jeder. Der holte aus dieser Nachrichtensoße tatsächlich was Besonderes. Der knipste so, wie Leo Lattke gerne schrieb.

(128) Zunächst nahm er Zuflucht bei einer bequemen Ausrede: Als Leo Lattkes Fotograf habe er nur dessen Storys zu bebildern. Und wenn der Reporter keine Story hat, dann hat er auch keine Bilder. Aber in Wirklichkeit hatten die Bilder neuerdings eine Beliebtheit, die uninteressant war. Sie starben rapide aus, die einzigen Bilder, als würde eine Seuche wüten.

(129) Der Abend hatte Luxus. Der größte Luxus bestand in den Gästen. Erst dachte Lenas großer Bruder, es wäre die Garderobe. Später vermutete er, es seien die Düfte.

(133) Telefonnetz von 1926, und entsprechend ist die Telefonkultur. Wenn Sie ner Sekretärin sagen *Faxen Sie mal bitte...* dann guckt die erschrocken, weil sie glaubt, sie soll Faxen machen. [...]

»Das ist ein Anrufbeantworter«, sagte Leo Lattke, »Ich weiß, ich bin fies, ich ruf dich nach vorn und mach dich zum Eimer. Trotzdem danke, vielen Dank!«

(134) Lenas großer Bruder war wie vor den Kopf geschlagen: [...] doch mit einem kleinen Kasten, der dreihundert Kilometer weit weg war und nichts tat, als ihre Stimme aufzunehmen, wurde sie nicht fertig. Von dem ließ sie sich zur Lachnummer machen. Der ganze Saal lachte, und Lenas großer Bruder konnte es niemandem übelnehmen - es war tatsächlich komisch und auch lächerlich, wenn der wilde Willi getreu wiederholte, was ihm Lena einflüsterte - und wie daraus eine Nachricht wurde, mit der niemand etwas anfangen konnte. Und als der wilde Willi seine große Zunge ins Spiel brachte, mußte sogar Lenas Bruder lächeln.

(135) Lenas großer Bruder glaubte, daß die Einheit kommen wird. Er glaubte sogar, daß der *Westen* kommen wird. [...]

Die Frage war nicht, *ob* und auch nicht, *wann*. Die Frage war: *Was ist Deutschland?*

(136) Auch Lenas großer Bruder war von Leo Lattke überrascht. Er hatte diesem lärmigen, rücksichtslosen Menschen nicht zugetraut, einer Geschichte, die sich geradezu anbietet, herauskrakeelt zu werden, so viel Gefühl und Würde zu geben. Nach dem Interview, das Leo mit einem der sieben sonderbaren Wesen führte, hatte er alles in der Hand, um als heterosexueller, gutaussehender, erfolgreicher und fickfreudiger Mann diese Menschen mit demselben Spott zu präsentieren wie die Erstbenutzer eines Anrufbeantworters. Doch etwas hielt ihn davon ab. Dieses Etwas waren die Fotos Lenas großem Bruder.

5.3 과거 대면을 통한 상처 치유와 화해

(139) »Als ich siebzehn war...« [...] Als niemand mehr da war, lehnt sich einer rüber, der da die ganze Zeit gesessen hat, und sagt: >Willst du mal hypnotisiert werden?<

[...] Da saß ich nun Spiele war. Ich habe mich... nein, nicht nur geschämt–ich wollte nicht mehr ich sein. Ich wollte mich loswerden, ich wollte mich neu haben.

(141) Ihr großer Bruder war ein kluger, schwacher Mensch, von des Gedankens Blässe angekränkelt. Sie mußte nicht klug sein. Es reichte, daß sie mit einem starken Willen ausgestattet war. Und wenn sie es will, dann wird sie nach Pleitz fahren–mit oder ohne ihn.

(142) »Weißt du noch, was ich vor einem Jahr gesagt habe?–Daß so ein Leben–mein Leben zum Beispiel–auch völlig anders gelaufen sein könnte und verlaufen könnte. Das Flirren und Flimmern der Zufälle regiert. So ist das nun mal. Weißt du noch, wo ich dir das erzählt habe?«

»Na klar. Als du das erste Mal auf Rollschuhen unterwegs warst.«

»Aber wenn man etwas nimmt, das an vielen Stellen flimmert und flackert, und man schaut sich *das Ganze* an, dann sieht man, wie es leuchtet, verstehst du?«

»Nicht so richtig«, sagte ihr großer Bruder, der sich aufs Fahren konzentrierte.

»Wir zum Beispiel, mit unseren Scheinwerfern sind wir nur ein Lichtpunkt in der Nacht. Aber in New York zum Beispiel, da ist abends und nachts so viel Licht auf einem Haufen, daß man das sogar vom Mond aus sehen soll. Und das Leben–ich finde, es leuchtet manchmal. Wenn die Zufälle nur wenig flimmern und flackern, dann kommt nichts zustande. Aber im letzten Jahr, da ist so viel passiert.

Natürlich nicht nur mir, sondern auch vielen andern. Und da denke ich, das leuchtet. Das leuchtet so hell, daß man es noch lange sehen wird.«

5.4 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

(145) »Ich werde sterben, und ich teile dir jetzt meinen letzten Willen mit. Ich möchte, daß du allen erzählst, mich hätte eine Kokosnuß erschlagen. Das ist ein schöner Tod. [...] Die mich umgebracht haben, verstrahlt und vergiftet, sollen mich um meinen Tod beneiden. Sie sollen nicht wissen, wie sie mich gequält haben. [...] Mein Tod erzählt von Glück und Frieden, von allem, was sie mir nehmen wollten. Jetzt, hier in Thailand bin ich raus aus dem Knast, endgültig. Ich sitz am Strand und singe.

(146) Frau Warthe warf Erde ins Grab, und als sie den Blick hob, sah sie einen Schmetterling, der, veranlaßt von ihrer Bewegung, seinen Flug begann.

<참고문헌>

1. Primärliteratur

Brussig, Thomas: Wie es leuchtet, Frankfurt am Main 2004.

토마스 브루시히 저, 문항심 역: 『그것이 어떻게 빛나는지』, 문학과지성사, 2009.

2. Sekundärliteratur

권오현: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 초·중등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제32집, 2006.

권오현: 「초·중등학교에서의 세계문학 교육」, 『헤세연구』, 제10집, 2003.

김경란: 「사진의 상호매체성-사진과 문학, 영화, 회화의 상호작용성-」, 『독일언어문학』, 제46집, 2009.

김누리: 「동독역사의 알레고리적 회화화-토마스 브루시히의 소설 『우리 같은 영웅들』」. 『독일문학』, 제104집, 2007.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 2008.

김용민: 「통일과정에서의 독일문학-개혁사회주의자의 꿈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길찾기」. 『독일문학』, 제59집, 1996.

김춘식: 「한국문학: 미적 근대성과 근대적 시어-밤, 어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8집, 2005.

김현아: 「소설에 나타난 사진 이미지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8집, 2011.

김홍진: 「특집: 문학 언어와 담론; 한국 현대시 작품에 나타나는 “불/빛”의 이미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2010.

류산: 「통일 이후 독일 문학계의 지형변화」. 『뷔히너와 현대문학』,

- 제27집, 2006.
- 르네 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74.
- 박설호: 「현대문학: 문학 현장과 체험 현실-미완의 동독문학, 그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28집, 2013.
- 박찬일: 「‘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 Thomas Brussig의 『존넨알레』에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 박희경: 「독문학: ‘트라반트 세대’의 멜랑콜리 - 동독에 대한 문학적 기억의 방식들」, 『독어교육』, 제47집, 2010.
- 양민석, 송태수: 「독일 통일 20년 - 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4)집, 2010.
- 이상금: 「하나의 독일 문학, 정체성의 탐색과정」. 『오늘의 문예비평』, 28호, 1998.
- 전태국: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 정미경: 「독문학: 성찰의 기억에서 유희의 회상으로-동독/통일문학에서의 기억방식의 변화」. 『독어교육』, 제35집, 2006.
- 정영호: 「회상을 통한 동독과의 화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0.
- 조광민: 「분단 현실과 개인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 조윤주: 「Die deutsche Einheit und die Bewältigung der Vergangenheit in den Werken Thomas Brussigs」,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5.
- 토마스 브루시히 저, 이미선 역: 『존넨알레』, 유로, 2005
- 한운석: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제54집, 2009.
- Bach, Susanne: BRUSSIG, THOMAS, in: KinderundJugendmedien.de, 2013년 1월 1일.
- Beiküfner, Uta: Thomas Brussigs Wenderoman “Wie es leuchtet”

- versucht sich als buntgemalte Klamotte Über den Ostnen nichts Neues, in: Berliner Zeitung, 2004년 09월 22일.
- Biermann, Wolf: "Wenig Wahrheiten und viel Witz. In: Der Spiegel/5/1996 v. 29, 1996년 1월 29일.
- Bremer, Ulrike: *Versionen der Wende. Eine textanalytische Untersuchung erzählerischer Prosa junger deutscher Autoren zu Wiedervereinigung*, Osnabrück 2002.
- Brussig, Thomas: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Frankfurt am Main 1999.
- Degener, Janna: Wenn plötzlich alles anders ist... Thomas Brussigs Roman "Wie es leuchtet", in: Die Berliner Literaturkritik, 2005년 3월 8일.
- Egeland, Håvard: Licht und Chaos Thomas Brussigs Wendezeitpanorama Wie es leuchtet, The university of Bergen, Bergen 2008.
- Emmerich, Wolfgang: *Kleine Literaturgeschichte der DDR*, Berlin 2000.
- Grub, Frank Thomas: *>Wende< und >Einheit< im Spiegel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Band 1: Untersuchungen. Band 2: Bibliographie*, Berlin 2003.
- Henkel, Ayoe Quist: Versuch einer Charakteristik der Erzählperspektive und deren Beitrag zu lustigen und lachhaften Elementen in Thomas Brussig Am kürzeren Ende der Sonnenallee. In: Klaus Bohnen; Bjørn Ekmann (Hrsg.): *Text & Kontext.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teraturforschung in Skandinavien*. München 2002.
- Igel, Oliver: *Gab es die DDR wirklich?. Die Darstellung des SED-Staates in komischer Prosa zur „Wende“*, Tönning 2005.
- Klein, Olaf Georg: Ihr könnt und einfach nicht verstehen! Warum

- Ost- und Westdeutsche aneinander vorbeireden, Frankfurt am Main 2004.
- Klinge, Frauke: Thomas Brussig: Wie es leuchtet, in: Kulturmagazin, 2004년 11월 1일.
- Kolbe, Uwe: *Hineingeboren. Gedichte 1975~1979*, Berlin, Weimar 1980.
- Kowalik, Nora: Der Wandel von Identität und der Beziehung zur DDR-Gesellschaft und Ideologie in drei Werken über die DDR nach dem Mauerfall, Laramie, Wyoming, 2009.
- Kraft, Thomas(Hrsg.): *Aufgerissen zur Literatur der 90er*. München: Piper 2000.
- Kürten, Jochen: Thomas Brussig lässt die DDR weiterleben, in: DW, 2015년 02월 25일.
- Ledanff, Susanne: “Neue Formen der “Ostalgie” – Abschied von der “Ostalgie”? Erinnerungen an Kindheit und Jugend in der DDR und an die Geschichtsjahre 1989/90”. In: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Volume 43, Number 2, 2007.
- Magenau, Jörg: Kindheitsmuster. Thomas Brussig oder Die ewige Jugend der DDR. In: Thomas Kraft(Hrsg.): *Aufgreissen. Zur Literatur der 90er*. München 2000.
- Malchow, Timothy B.: “Nicht das eine und nicht das andere”: Hybridity, Gender, and (East) German Identity in Thomas Brussig’s *Wie es leuchtet*, in: *A Journal of Germanic Studies*, Volume 46, Number 2, 2010.
- Overhoff, Evelyn: “Endlich der große Deutschlandroman? Thomas Brussigs *Wie es leuchtet*”. In: http://www.ruhr-uni-bochum.de/deutschlandforschung/PDF_Dateien/idfp37.pdf (urspr. IDF-PUBLIK 37/2004 v. 08.12.2004), 12-13.

- Radisch, Iris: Zwei getrennte Literaturgebiete, Deutsche 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in Ost und West. In: Heinz Ludwig Arnold(Hrsg.): *DDR-Literatur der neunziger Jahre*, München 2000.
- Reißig, Rolf: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Das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modell und seine Ergebnisse. In: Hannes Bahrmann/Christoph Links(Hrsg.): *Am Ziel vorbei. Die deutsche Einheit - Eine Zwischenbilanz*, Berlin 2005, 293-316.
- Richter, Peter: Nobelpreis, ich komme! Thomas Brussig, der Meister des kleinen Witzes, will Großschriftsteller werden. In: FAZ, 2004년 9월 26일.
- Richter, Steffen: Zwischen Melancholie und Endspiel. Die Literatur hat mit der DDR noch nicht abgeschlossen, in: Neue Zürcher Zeitung, 2002년 4월 27일.
- Schmidt, Jochen: *Triumphgemüse, Geschichten*, München 2000.
- Schulenburg, Anika: "... ich kenne mich hier nicht mehr aus." Heimatverluste der Wendegeneration in Romanen ostdeutscher Autoren, Hamburg, 2013.

Zusammenfassung

‘Licht’ und ‘Dunkelheit’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Thomas Brussigs Roman 『*Wie es leuchtet*』 – am Beispiel der Figurenidentität

In Thomas Brussigs Wenderoman 『Wie es leuchtet』 werden mithilfe von Geschichten unterschiedlicher Menschen die Erwartung und Hoffnung, welche die Menschen in der DDR bezüglich der Zukunft hegten, und die damalige Desorientierung und Verwirrung, die sich zur Zeit der Wende verbreiteten, dargestellt. Als die Berliner Mauer im Jahre 1989 geöffnet wurde, war die Freude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zunächst groß, doch schon bald machte sich angesichts der Realität große Enttäuschung breit. In seinem Roman stellt Brussig die inneren sowie äußeren Konflikte zwischen der ost- und der westdeutschen Bevölkerung dar und präsentiert Lösungsvorschläge zur Überwindung eben dieser.

Im Hinblick auf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gilt es, sich nicht nur auf die positiven Seiten einer Vereinigung zu fokussieren, sondern auch die negativen Seiten in Betracht zu ziehen. Trotz diverser Unterschied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was den historischen Hintergrund angeht, nimmt Deutschland als Staat, der Teilung und Vereinigung erlebt hat, eine

Vorreiterfunktion ein. Vor diesem Hintergrund ist die Wendeliteratur als wichtiger Forschungsgegenstand zu sehen, da sie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sowie die zwischenmenschlichen Konflikte, aber auch den Transformationsprozess der Identität des Einzelnen auf realistische Weise darstellt.

Der Fokus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auf der Betrachtung von einzelnen Protagonisten und Ereignissen in Brussigs Roman 『Wie es leuchtet』 aus der Perspektive von 'Licht' und 'Dunkelheit', wobei 'Licht' und 'Dunkelheit' gleichermassen wie 'Leben und Tod', 'Gute und Böse' oder 'Idealvorstellungen und Realität' als Gegensatzpaar zu verstehen sind. Dazu kommt, dass sich die symbolische Bedeutung von 'Licht' und 'Dunkelheit' mit den zeitlichen Gegebenheiten verändert. Vor diesem Hintergrund soll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symbolische Bedeutung von 'Licht' und 'Dunkelheit' im Hinblick auf 'ideale Zukunft und dunkle Realität' bzw. 'positive und negative Gefühle', welche sich zur Zeit der Wende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breit machten, untersucht werden. Auch die Veränderung der Identität, welche die ostdeutsche Bevölkerung erlebte, stellt ein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dar. Identität bedeutet in diesem Zusammenhang die Denkweise, Wertvorstellung und Überzeugung des Einzelnen, die sich im Miteinander mit anderen Individuen, jedoch auch auf der Grundlage einer bestehenden Gruppenidentität entwickelt. Auch die Verwirrung, die sich mit dem Verlust der Gruppenidentität in der Bevölkerung einstellte, soll im Rahmen dieser Arbeit aus der Perspektive von 'Licht' und 'Dunkelheit' untersucht werden.

Ziel der Untersuchung ist es, nicht nur die positiven Seiten ('Licht'), die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von Nord- und Südkorea mit sich bringen kann, zu nennen, sondern auch auf mögliche negative Seiten ('Dunkelheit') hinzuweisen und

vorzubereiten. Auf diese Weise soll auf Hindernisse, die einer wahren Vereinigung unterschiedlicher Menschen im Wege stehen, aufmerksam gemacht werden, um eventuelle Lösungsmöglichkeiten in Betracht zu ziehen.

**Stichwörter: Wie es leuchtet, Thomas Brussig,
Wendeliteratur, Deutsche Vereinigung, Integration,
Licht und Dunkelheit, Identität**

Studentennummer: 2014-20908